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illegible]

# 『퀘손』一派를非難코 完全한獨立要望
## 比島今回의暴動에關聯하야
## 日本亡命中의라모스氏聲明

【電通東京電話】昨年末以來日本에亡命하야 極秘裡에前政友會代議士松本君平氏等의 保護下에日本人知人間의援助를求하야 比島獨立運動에奔走하고잇든 필립핀사크다리스타黨總裁 베니그노·라모스氏는 突然 六日午後三時麴町區內幸町東洋拓殖빌딩 地下室「지그바」에 나타나 日本新聞記者團에對하야 聲明을 發하기爲하야 毅然한 態度와 流暢한英語로 左와 如히 말하엿다

今回 마닐라에서 이러난 暴動은 比島島民이 暴動을 이르킨것은 아니다 自己가 當地에서 島民에게 보낸 比島暴動計劃의 指令이 米人官憲에게 奪取되여 그것은 米人官憲의 口實로 千餘名의 島民을 虐殺한것이다

라고 말한後 比島로부터 刺客이日本에 潛入하엿다는데 對하야 東京에 刺客이 드러와다고해서注意는하고잇다 東京에는 去年十二月에왓스나 今夜에라도 出發할는지도 알수업다

그實 그가 가진 手提鞄에는 東京市中의 各方面의 荷物票가 貼付되것이 그의 말을 立證하는듯하다 그는 손에 드럿든 呂宋煙을 내여던지고 正色하야

퀘손 오스메니아의 國民黨과 사로온의 民主黨이 組織되든 當時 比島獨立의 即時獲得의 旗幟를 放棄하고 米國과 合倂하엿기때문에 人民은 크게 憤激하야 一九三三年 十二月 卄九日 마닐라에 사크다리스타스黨을 組織하엿든것이다 그前에 比島의 獨立을 承認하고 米國의 權力을 撤回하다는 존스法(比島獨立法)이 議會를通過하야 웰손大統領까지도 一九二〇年의 議會에 比島에絕對的獨立을 與할것이라고 確言까지하엿스나 퀘손 오스메니아는 此多數派熱援지안코 有耶無耶로지나갓다 這間에 마티피라이딩스法이 생겻스나 그러나 이獨立法을 一般投票로 是認採用하야 獨立을 許與한다고해도 米國海軍은 依然比島에在留케된다 더욱 避暑地바기오의山嶺 中央呂宋의 山上민다나오山上에도 잇는 陸海軍要塞六十六個所에 永久的腐敗을 行하야 此를強化하고 一萬人의 米兵을 駐屯케한다고傳한다 이것은 大體무엇을 意味하는것인가 이것을 完全한 獨立이라고 할수잇는가 우리民衆이 痛憤하는것도 當然한일이안인가 我等은完全한獨立을爲하야 十八年間이나隱忍하여왓다 今日에와서 마티피라이딩스法에依하야 完全한獨立이許與되지안는다고하면 過去十六個星霜의苦心은 水泡로도라가고만다 우리에게 完全한 獨立을許與하라 그러치안흐면 十八年間에支拂한 租稅를返還하라고 鮮血을吐하면서絕叫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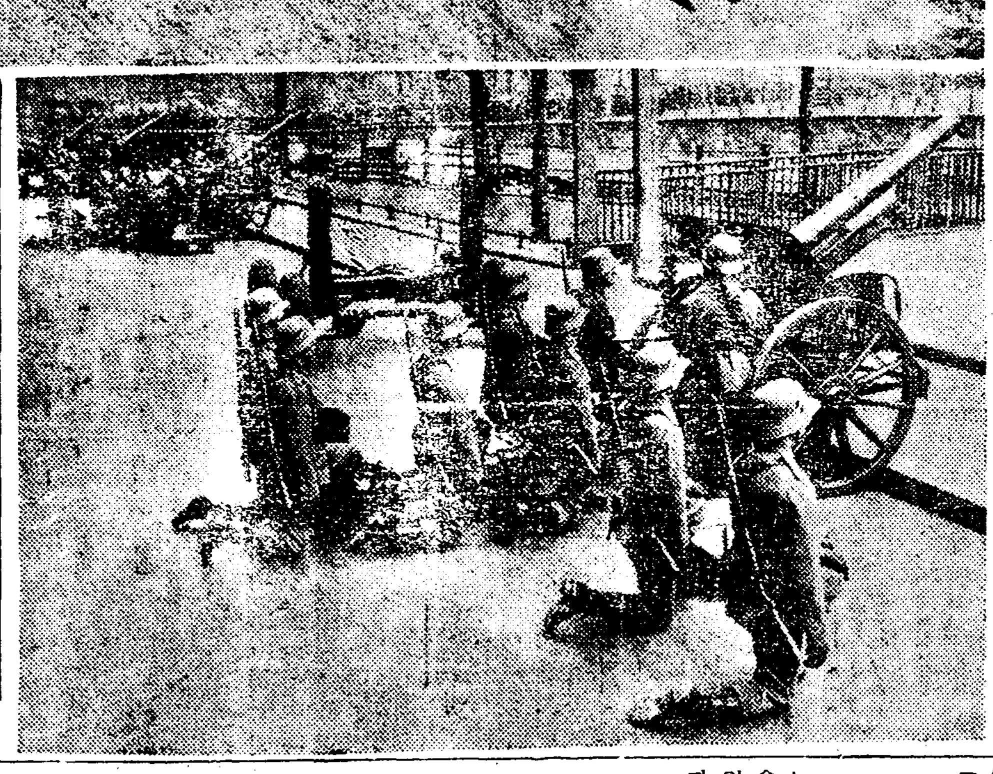
그는極히興奮되여 右手로記者의억개를치며 눈물을흘린다 (寫眞은 라모스氏)

# 在外公館擴張코 大使館을더擴張
## 波蘭,西班牙,알젠친에

【電通東京電話】廣田外相은東亞主義의見地에서 中國及暹羅와大使를交換할方針을 內定하엿는데 在外國外機關은 伊太利의 半數라는貧弱한 狀態에잇슴에鑑하야 明年度豫算에서 領事館、總領事館의新設擴張等 在外公館의機能充實을圖하는同時에 波蘭、알젠친、西班牙等의 各公使館의大使館昇格도 考慮할意向을 가지고잇다 波蘭은 對獨關係上 歐洲에在한緩衝國으로서 重要視되고알젠친은 부라질과함께 南米의二大國으로 알니워저잇는데 부라질에만 大使를 駐箚식힌다는不均衡狀態에 잇고西班牙는 中南米諸國의 舊母國으로 써도對中南米關係에 重要性 잇는等各理由에基하야 考慮케된것이다

## 小協商各國政府 十四日부터市會商

【부카레스트六日發聯合】小協商各國政府는 來十四日부터 북하레스트에서 會商을遂하고 따늄會議에臨할對策을 妥協하기로決定하엿다



=再軍備下의獨逸= 베르사이유條約은업다고 宣言한獨逸 來一方的 再軍備에 突進하고 잇는 獨逸은 最近에 어느새에 準備하야 노앗든것인지, 탕크隊의 練習(寫眞上)과 高射砲隊의 練習을 公然히 伯林 近郊와 및 街上에서 行하야 世界를 놀내게하엿다

# 四面楚歌中의 루大統領新政策
## 資本家의不滿遂爆發

【華盛頓二日發聯合】루즈벨트米大統領의 新政策에 對해서는産業資本團間에 相當히 强硬한反對意見이 有力하엿는데 商業會議所 年次大會를 機로 以上不滿이 드듸어 爆發하야 大統領과 資本家團이 新政策을 中心으로 極端의 對立을 示하게되엇다 뿐만아니라 이靑壯革命의指導者와 資本家團의 代辯者인商業會議所와의 抗爭은 더욱激化되리라고 豫想된다 새로 會頭에 選任된 하버·씨프리氏는 二日朝 新聞記者團에 對하야如左히言明하엿다

米國政府當局과 商業會議所와의 사이에는 新政策에 關하야 意見이 衝突하고잇다 會議所로서도 斷然 强硬한 態度로 루즈벨트大統領에게 反省을 求할 方針이다 上院財政委員會가 N·R·A延長法案을 審議한 結果 二個年延長의 政府原案을 修正하야 一九三六年 四月 一日까지 延長을 承認한다는 旨를 決議한 事實도 잇서 新政策도 지금에 四面楚歌의 觀을 呈하고잇다

【華盛頓二日發電通】全國商業會議所 年次大會는 今日開催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뉴딜에 對하야 如左한 決議案을 可決하야 事實上 全面的으로正式反對하엿다

一、産業界統制는 産業主體로써 行할것

二、政府가 議會에 提出한 公益事業取締法案은 斷然 通過시키지안흘것

三、農業調整局은 現行法規를變更하지말것 特히 生産調整에關係事項에 잇서서 그러하다

# 對小協商國工作 廿一日豫備會談
## 伊太利政府當局發表

【電通베니스六日發】伊太利當局은 六日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 豫備會談의 終了를 기다려 直時 다뉴브會議의 第二段의 準備工作으로 올마 對小協商國 豫備會談의 開催를 決定하엿다는 旨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伊太利政府는 六月 다뉴브會議의 準備로 墺太利、匈牙利兩國外相과 意見을 交換하엿다 그리고 來五月二十一日 체코슬로바키아及 루마니아外相을 招致하고 유고슬라비아首相이 右會談에는 伊國도 代表者를 參加식히기로 되엿다

# 對獨武力不用條件으로 墺獨立保障에贊意
## 獨墺合倂은不可避的인事實로豫見
## 三國會談과匈國態度

【電通東京電話】伊墺匈三國豫備會談第三日에 데간야外相은 獨逸에對하야 武力行爲를 取치안흘것을 條件으로 墺太利獨立保障協定調印에 贊成할 意思를表明하엿는데 匈牙利가 對獨武力行爲를 拒絕하는 態度를 取한것은 獨逸의 墺太利合倂을 不可避한 事件이라고 豫見하고 萬若獨逸이 右案대로 墺太利倂合을 斷行할境遇에는 獨逸의 援墺國으로될러로 此際匈牙利가反獨的決議에 參加하는일이 잇스면獨逸의對匈牙利關係은 直時惡化를齎來할 虞慮가 잇기때문이다 그리고 匈牙利의 勢力增加要求도 이獨逸과 援墺關係에이르게될時 必然的으로 要求될防備力强化를 目的으로 한것이라고解釋된다

## 三國會談終了後 콤뮤니케公表

【電通베니스六日發】三日에亘하는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會談終了後三國代表의 名義로左의簡單한 콤뮤니케가 公表되엿다

三國間의討議는 伊太利、墺太利、匈牙利羅馬議定書를 基礎로 가장有效的으로 遂行되엿다 玆에其終幕을告함에 當하야 三國代表는 右討議에잇서 成立된諸協定이來다뉴會議의一般的 協定達成을 便利케 하기를希望한다

## 스伊外務次官談

【베니스六日發聯合】伊太利代表 스빗치次官은 欣然히말하기를 따뉴諸國間의 國際關係는歐羅巴에서도 第一微妙한場所이라고보나 今回의會議에對하야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間의方針이決定된것은 이方面에잇서平和의達成에多大한 貢獻을 招致한것이라고思한다

## 발칸會議六日開催

【電通코브노『리투아니아』六日發】 발틱協商國會議는 六日부터 當地에서 열리엿다。 會議의議題는 東歐諸國平和問題特히蘇聯에서 提議한 相互援助條約에對한 協商國側의 態度決定及三國에對하야 발틱國境線의保障을與할것을 條件으로 하는 波蘭과의 諒解關係를 맺을는지 그與否問題等으로 三國代表는今後協商國으로서 取할方策을 審議하야 態度를 決定할터이다

# 히틀러氏、五月中 特別議會召集
## 聯盟決議案에對한回答과 新軍事法案宣布

【電通伯林六日發】히틀러總統은 마츰내五月中旬聯邦議會特別會議를召集하고 獨逸의 新軍事法案을宣布하야 特別議會의 協贊을 求하기로決定하엿다 이軍事宣言은히틀러總統及나치스獨逸이 四月十七日 聯盟理事會에서 可決된料彈決議案에 對하야 發할獨逸의回答이다 儀開하면 右軍事法案은부롬벅國防相이 起草하야 來十日에開催할 閣議에 附議하야審議決定하기로 되엿다

004251

# 民世筆談 (四)
## 民衆深化過程(再)
## 自然과歷史와現實
### 安在鴻

×

無[illegible]先生 足下

東亞史上 民族成敗의 자취를 一瞥함도 意義잇는 일입니다 有色人種의 問題가 잇는터이니 黑人과 가튼者는 그將來가 멀은者이나 그數量이만흔點에서 크게 드든바입니다 近者 뭇솔리니의 伊太利가 唯一의 黑人國인 에디오피아에 向하야 羅馬의 손을 대려는것은 二十世紀의 暗黑한 特色일법 하여도 또二十世紀 文明의 恥辱 입니다 아메리카의 紅人은 세상사람들이 대번에 未開人으로 처버리는 터이나 그들의 廉直敏感함은 移住者인 白人들의 現金主義的인 브르的 態度에 그主觀에서는 도리어 매우 侮蔑 擯斥의 態度를 가저서 즐기어 그現代文化의 長點을 배우려고도 아니하는까닭에 畢竟은 그衰亡 沒落의 悲運을 보는것 입니다 北阿弗利加의 沿岸民族들은『함』種族으로의 固有文化와 사라센 帝國以來의 끼친 文化의 힘을입어 오히려 歐洲人의 侵略에 버선는바 잇섯스나 往年 리푸人의『압델크림』을 앞장세우고서의 反歐洲의 運動은 아즉도 讀者의 記憶이 뚜렷한바입니다。

×

前者들과 다른 形態로는 또 民族勝敗의 意味기픈 經緯가 잇스니 古代에잇서 希臘人과 波斯人의 永年에 빼친 葛藤은 역시 讀者의 留意하는바로 例의 따리어스(波)大王과 알렉산더大王의 敵國侵入가튼 것은 그代表的인 일이오 로마人과 칼타고人의 葛藤도 萬年霸權의 關係로되어 한니발의 熱火가튼 意圖도 드듸어는 炎炎히 피어오르는 칼타고 滅亡의 불꼿을 꺼불슴이 업섯습니다。英佛兩國은 十九世紀 最末(一八九九年 三月二十一日)에서의 協商關係를 劃時期로 伊來 半世紀에 갓가운 親善을 持續하고 잇스나 第十四、五世紀에 걸처서의 百十七年間의 戰爭은 例의『짠·딱』少女의 情熱의 愛國譚을 남긴 悲慘의 抗爭史로 비롯하야 十九世紀時代까지 거의 全世界的의 激化한 對立을 보든것이며 帝政露國과 土耳其와의 國民的 葛藤도 十九世紀에 잇서서의 歷史的 大事實로 되어잇습니다 獨逸人과 佛蘭西人이 各各 中歐의 平野에 잇서 兵連禍結의 血戰史를 가지는것도 目下까지의 重要한 國際事情의 하나이니 그中에도 푸레더릭大王 大나폴레옹 바스막公時代以來의 激烈을 겨울든事한 對立의歷史는 注目되는 일입니다 이모든 國民的 或은民族的의 無意味한 葛藤이 하루밧비 解消되어야 할 理論은 두어두고 文化民族의 消長成敗는 宇宙千年 有心人의雄大한 關心事가 아니될수업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모다 一定한民族國家로서 흥은 帝國的國家로서 또 一宗한 榮耀하는段階에 올러간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一括하야 말한다면 一國民 一民族은 모다(一)그鄕土나 祖國의 自然인風土를 土臺삼어 (二)그 許久한 年代를通하야 겪거오고 싸와온 生活의 恒久한 持續으로서의 綜合的인 歷史를主潮로삼어、即 共通한 生活集團의 濟妬할 生生한 大綱領으로 삼어 (三)각각그 現實에서의 交互 錯綜하는 國際的인 諸勢力과 온갓 文化와의 交涉과 融合과 및 그로因한 끈님업는 新自我와 新文化의 建設 또는 創造에 依하야 一進一退 一張一弛 하면서 民衆的의 歷史的行進을 한것이오 또 하고잇는것 이라고 할것입니다

×

그럼으로 一國民이나 一民族의 政治的盛衰는 첫재 그歷史的 因果律의 벗어날수 업는 올미 오 둘재로는 浩大한 國際風雲上의 不幸히 몰어와걸린 一大運勢이라고 처서 다다친 現實의 人民들이로 認識하고 그리고 이다닥처진 運勢의 過程을 一個의 題로 삼어 一大 强猛 熱烈한 그러나 冷靜 平穩한 文化的 普及및그昇進 또는 深化에 專力할것입니다 그리고 自然인 祖國의 鄕土와 生成의由來인 歷史와 및그 現實相互의 交涉이오 扶助오 또自己自身의 反省과 洗鍊과進步發展인 諸民族과의 接觸은 暫時라도 허름이 생각할바 아닌것입니다 接觸에는 親和와抗爭이 때에 딸어 다를 것입니다

# 發틱艦隊의再建은 對獨牽制의目的
## 北鐵讓渡金으로外蒙鐵道建設
## 蘇聯의外廓國防益强化

【哈爾賓發】北鐵讓渡協定의成立과함께 極東軍備의歐蘇移駐問題가日蘇國交整調의日程에올나 大田大使의歸任으로 다시 이것이一段進展을보게되리라고 豫想되는데 最近『데일리·엑스프레스』紙에소우特派員은 歐蘇方面에잇서 蘇聯의軍備强化에對하야 報道하고잇다 此에依하면 最近莫斯科에서는 國防人民委員會의 海軍部最高委員이 重大한會議를 開催하엿다는것이다

이會議는 四月三十日 國防人民委員 보로쉬로프將軍의 名義로緊急會議를 召集한것인데 보로쉬로프國防人民委員은 이會議席上에서 現在獨逸이 計劃中인强力한 軍艦의 建造는 直接蘇聯에 對한 脅威가 될으로 蘇聯은 直時 발틱海에 잇서 海軍勢力의 强化에 着手치 안흐면 안된다고 述하엿다。 그리하야 이會議에서 발틱艦隊擴張建造計劃案이 審議可決되엿다 이造計劃案은 스탈린의 承認을 거처 크론슈탓트造船所에서 軍艦의 建造가 開始될터이라고 報道되엿다 萬若 이발틱艦隊의擴張計劃이 實現될 時에는 歐洲平和의 偉大한 脅威가 될것이다

그리고 最近情報에依하면 蘇聯當局은 새로外蒙에잇서 鐵道建設計劃을 樹立하야 北滿鐵讓渡金을 此에支出하기로되엿다는데 그準備的活動을 爲하야 이미蘇聯의 中央으로부터 特別히專門的技師가 派遣되여 活動에着手하엿다고한다

## 人事·集會

◀金圭冕氏(京城商工協會常務理事)商工協會主催聯合大運動會終了人事次七日上京
◀朴正薰氏(新義州實業家)七日上京偏田屋에滯留
◀韓萬熙氏 京城府會議員立候補人事次來社

## 八面鋒

◇五月八日! 이한밤만 더자면, 景武臺넓은마당에 아가네의노리러가 열리는날。
◇서울長安 三十곳 幼稚園의동무들이『마치들도 모혓고나、반가워라 동무들 모혀며 손을잡고 노래부흐날。』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다가치 모혀서 아기네의재롱을 마음껏 질겁날。
◇이조흔날 이조흔자리에 아들딸다리시고 모히실 어머님아버님께 八面鋒子한마듸……
◇『한집의어룬은 家庭이며 한집의主人은 子女입니다』
◇『밥먹고 잠자고 옷닙고 居處하는 모든生活을 主人標準으로한시다子女中心으로한시다』

# 政民聯携委員의 陸相과의會見延期
## 滿洲國視察終了後로

【東京電話聯合】政民聯携委員의 會見申請에對하야 林陸相은個人의 資格이라면 어느때나 會見하고 國防問題와今後軍事費의豫想等에對하야 意見을交換하겟다고 回答케하얏는데 其後聯携委員은 對滿政策과滿洲諸問題에對하야도 陸軍首腦部의 意向을 充分聽取하기를바란다고 通하여오나 林陸相은 二十一日東京을出發하야 滿洲視察에赴함으로陸相이 任地의實情을 充分視察하고 確固한認識을 어더가지고歸東한後 此等問題에對하야各派代表者와 會見하는便이今後對滿政策滿洲諸問題에對하야 一層徹底한意見交換이 될것임으로 다시聯携委員에 對하야 이意向을說明하야滿洲로부터 歸東한후會見하게될것이다

## 調査局長官에 吉田翰長決定

【電通東京電話】過日來 詮衡難에 陷하엿든 調査局長官에 對하여는 現內閣書記官長吉田茂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岡田首相으로부터 同翰長에게 正式交涉한結果 其受諾을 보게되엿다 그리고 書記官長의 後任은 目下首相이 詮衡中인데 右決定과同時로 아울러發表할터이다

## 吉田氏起用經緯

【電通東京電話】翰長의內閣調查局長官도 物色·詮衡을 하는겨우 吉田現書記官長이 轉出키로 七日閣議에서 內定을보게되엿든데 吉田書記官長의 起用은 最後의方策인것만큼 玆에이르기까지는 岡田首相을 爲始하야 高橋藏相 床次遞相、町田商相의 三長老와 後藤內相等이 자못苦心하엿다 엣번이나 長老會議를 反覆하고도 全然候補者가 決定되지못하야四月下旬四條隆英、馬場鍈一氏에게 物望이 올랏스나 說服에도 不拘하고 四條男은四周의 事情으로 固辭하고 또馬場氏도 受諾困難하다는것이 判明되자 黑崎氏 其他로부터도 推擧가잇서 此等情勢로 五月三日 岡田首相은 高橋藏相、床次遞相、町田商相 及後藤內相과 協議한結果 政府意中의 人物을얻지못할境遇에는 吉田書記官長의 起用을 最後의 方策으로하고 書記官長에게 交涉한結果 內諾을엇게된것인데 首相은 더욱愼重을期하야 閣公訪問後 六日朝에 正式內定을 보게된것이다 그리고吉田氏는 調査局長就任前 協調會常務理事時代에 熱心으로 農村經濟問題를 硏究한 元來內務方面의人物로 內政問題에 精通하는以外에 書記官長으로서도 其政治的手腕을 認定밧게되여 相當한人物로서는 適任이라할것이다 다만政府가 最初에 企圖한 大物人主義와는 多少 떠남이잇다는것은 免치못할것이다 그리고 書記官長의後任은 當分 翰長事務를 기다려 一切發令을 보게되리라고 豫想된다

## 英皇帝鹵簿進行中 突然赤旗揭揚 一時는非常히騷亂

【倫敦六日發聯合】謝恩式에親臨하시는 英國五世陛下의 御行列이 센트폴寺院으로 向하시는 御途中 蘭蒲가리리트街에 當到하엿슬時突然街上에 사베트旗빨이 나타낫슴으로 拜觀하고잇든 市民은 愕然失色하엿스든데 附近에서잇든사람들이 直時此를끄집어 내려破棄하엿슴으로 無事하엿스나 一時는非常히騷亂하엿다

御仕入は早く!! 春夏運動服裝品揃
最新流行界店舖特の徒
◉カタログ送呈
◉良い品仕入は店の信用
◉商談に依り特約店應ず
Tskigi Sporting Goods & Co.
全般運動服裝製造卸
ツキギ運動用品本舖
大阪市北區老松町三丁目 支店 東京神田 [illegible]

大阪市梅田新道 森太平商會

東京 奥門作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卸 九喜商店 電話新町七二四番

夏物羅紗洋服品揃
大衆向 三ツ揃、學生型詰衿上下 レインコート、ズボン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卸問屋 田中宇商店
店章捺印ニ限リ定價表進呈
電話東三〇三五番 振替大阪三六二〇番

テグス 卸 釣漁材料具 問屋
大阪市西區靱南通五丁目壹
淡路テグス合名會社
開店代理店業界如何한相議에나應함(カタログ呈)
電話土佐堀五六八〇番 振替大阪二五一八九番

感謝
全鮮洋服愛用者各位의 絕大的愛顧의恩澤으로써 本年春物은 非常한好成績을내엿습니다 이것을衷心으로感謝합니다 더욱더욱爽快한 初夏를마지하야 夏物의用命을바드랴고 近日各地에 出張員이拜見할거시니아무조록그때는 春物以上의愛顧를주시도록 玆에 紙上으로써 感謝兼人事를올입니다。
近來本社의商名을보고注文바드로다이는者가잇다하니注文時는반듯시本帳에刻印하야잇스니『日本興國洋裝社』의文字에注意하십시요
親切한洋服을만드는 日本興國洋裝社 大阪本社總務部

# 文川檄文事件擴大
## 青年五十名을檢擧
### 檄文裡面에結社나업나하여
### 警察은晝夜로活動中

【川內里】 메이데이를압두고문천(文川)과 공장지대와 도시조합일대에 내용이극히 격렬한격문을부치며 산포하야 경찰은취변십여명을검거하고 취조중 경찰은아직도 범인을 찻지못하야 경계망을느리고 주야를무릅쓰고 활동을계속하야 범서청년오십여명을 검거하야 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이며 그중에 모산문지국장도 검거되엿다 이와가티 검거가확대되고잇는것을 미루어보면 금번에 격문이 산포된 리면에는 어떤 지하조직이 잇지안는가하는 목표를두고 활동하는모양이다. 과연어떠한 리면조직이 잇섯는지는 아직알수업는 것이나 그처럼 오십여명의 다수한청년들을 검거하자 일반은사건을 대단히주목하고잇다

변을 외로히지내오는바 지난오월 어린이날을 구경코저 경성에가다 오는바 외따로볼것조차업는것을 비관하고 룡리원산에서 참혹히도자살을하엿다고한다

# 明日의幼稚園遊會
## 하늘도말게개인다
### 그러나서남풍은다소분다고
### 仁川觀測所의장담하는豫報

서울장안 수풀다섯곳 유치원의 애기네들의 성대한 노리를 위하야 하늘이 내일천오백명이 때때옷을 입고 나와야 어찌무심하겟습니까 하기는 만주북방에 기자기한 춤과 노래로 하로를즐길 명 대륙선풍(大陸旋風)이란 작난군이잇서서 딸알 경무대에서 열릴 본사주최 전경 종잡못하엿스면 조선의 천후도 변동이 성유치원원유회는 장안 온가정이 뒤떠 잇섯을것이나 요행동으로 이동하여 비 어날성사로 이날의 천후는 벌서전부터 바람이 위태할지경은 지낫습니다 그러 청명하기를 빌어왓든터인데 과연 이날 고 고기압은 황해(黃海)남방에잇서 중 의천후는 복잇게도 말게 개이리라는것 국남방과 동해로 빠지고잇서 날은 말 이다 천후에대한 인천관측소에 전화로 께개입니다 그러나 대륙선풍의 세력이 물으니 조영하(趙永夏)씨가 나와서아 강렬한때문에 긔압경사(氣壓傾斜)가 심 래와가티말한다 하야 서남풍이 다소잇슬뿐이고 원유회 래일 일기요? 참조습니다, 장안애기 를위해서는 아주 조흐니안심하십시요

# 監督權限을濫用
## 不當히醵金消費
### 京畿道蠶業取締所長의非行
### 刑事課에서調査中

관리의강긔숙청을 부르짓는 이지음직제하는 직권을리용하야 무리한 강제긔부를식히고 공연한공무상출장에도 려비보조라는 긔괴한명목으로 거금을편취착복한 사건이경긔도청에 발생되엿다 이사실의발단처는 경긔도농무과 소속인 잠업취체소(蠶業取締所) 인데동소소장 매곡여칠랑(梅谷與七郞)이 소화팔년에는 류구(琉球)로 소화구년에는 대만(臺灣)에 경긔도의명령으로 잠업시찰을가면서 부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에잇는 조선제사협회(朝鮮製絲協會)에매년오백원식의 려비보조의명목으로 부당한취재를 한일과 방금건축중인수원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잠사부(蠶絲部)제사공장(製絲工場)설치에 전긔 협회원이십사명에게 오천원식의 강제긔부를 배당하얏다 무리하나마응하지안흘수업는 동협회원들은 개인의 재산으로 지출할도리가업서현금 십만원을 식산은행에 빗내여목하 구만원가량을 지출하얏다한다 이와가티피감독자인 영리업자에게 다액의 금품을요구하는일은 봉만한일인동시에 이부담은결국 일반생산자에게 막대한영향이잇슴으로 말할것도 업는일이다 이사실을드른 경긔도 경찰부형사과(刑事課)에서는 딸일이래 야촌과장(野村課長)의 지휘로 사건의내용을엄중취조중이라한다

### 尹產業部長談

이에대하야 경긔도 산업부장윤태빈(尹泰彬)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문제는 나도 드럿는데 참유감천만입니다 그러나전임자의 취급한일인고로 아직 말할수업스나 류구나대만에 출장할때마다 려비는 정당하게 지급한것은사실입니다 운운』

# 作權剝奪이頻頻
### 金堤郡一帶에도
### 調停申請만百餘件

【金堤】 호경긔를당하야분쟁하고잇든 이때에 소작권박탈이 더욱심하다지난동일까지김제(金堤)군청에 나타난금번조정건수를 탐문한바에 의하면무려 일백여건이엿건로 이중에는자작하러는 자도잇거니와대개가희망의 리유업시 작권이동을긴행함에긔인한이라한다

## 上海仁成學校
## 大運動會

중국상해(中國上海)에잇는유일한 동포의교육기관인성학교(仁成學校)에서는 신록의오월십일일을복하야 조하경황가화원(漕河涇黃家花園)에서 대운동회를개최할터이라는데 이날은 상해에재류하는 동포들이 총동원하야 단란한하로를맛는날이다

## 海金剛叢石亭에
## 探勝客이踏至

【通川】 천하명승산금강산을 누구나 한번구경하겟다는것은 동일한것강다법서부터 해금강총석정(叢石亭)에는탐승객이 연일수백명을 초과한다는데 금년은 례년보다도 만흘터이라고한다

## 身勢를悲觀코
## 七十老人自殺

【纛島】 고양군독도면뚝섬리(高陽郡纛島面纛島里)에거주하는 김재홍(金載弘)(七○)로인은손녀를의지하고 살어오든중 설상가상으로손녀조차어디로인지종적을감추어이삼

# 運動競技欄

## 明日부터開幕할
# 第五回籠球聯盟戰
### 競技日割決定發表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第五回中等校、俱樂部籠球聯盟戰은 이옥고明八日午後四時부터市內松峴洞 實業專修學校코ー트에서 첫막이열리게되엿는데 지난六日밤에 參加한十三團體代表들이 朝鮮體育會館에會集하야 第一日의對陣만을 抽籤으로決定하고 그밧게來十四日까지의日程은同任員會에서別表와가티決定發表하엿다

| 時間 | 四時…四時三五 | 四、四〇…五、二五 | 五、四〇…六、二五 | 六、三〇…七、一五 |
|---|---|---|---|---|
| ▲8日(水) | (入場式) | 京實…培材 | 中央…普學 | 養正…徽新 |
| ▲9日(木) | 中東…大東 | 一高…京實 | 徽文…養正 | |
| ▲10日(金) | 培材…中央 | 普學…一高 | 徽新…中東 | 延專…高麗 |
| ▲11日(土) | 京實…普學 | 徽文…徽新 | 一高…培材 | |
| ▲12日(日) | 中央…京實 | 中東…徽文 | 養正…大東 | 高麗…普專 |
| ▲13日(月) | 培材…普學 | 大東…徽新 | 一高…中央 | |
| ▲14日(火) | 大東…徽文 | 中東…養正 | 普專…延專 | (閉會式) |

## 體育奬勵會主催
# 女子卓球大會
### 五月廿五日開催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의 第三回 全朝鮮女子個人卓球大會는 來五月二十五日(土) 午後一時부터 鐘路青年會館運動室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者는 五月二十二日까지 京城府外 新村驛前 梨花保育學校內 徐恩淑氏께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 拳鬪의計體量
# 米突制로統一

國際아마츄어拳鬪聯盟에서는 五月中旬 伯林에서總會를열고 伯林올림픽에對한 準備方針을協議하기로되엿다 同總會에는 獨逸拳鬪聯盟으로부터 『웨잇을 米突制로統一하자』는提案을上程할터인데 그內容은다음과갓다

一、從來計量의基準은 英米流에 依하야 封度를單位로하엿는데 이를歐洲流의瓩單位로換算하면 푸라이級의 一一二封度는 五○、八○二瓩、 뺀탐級의 一一八封度는 五三、五二四瓩로되여端數가생겨 計量에 不便을件하게된다

二、올림픽大會의 競技가모다米突制에 依한以上 拳鬪도이에따라 計量의單位를 瓩로統一하야 푸라이級으로부터 五一…五四…五七…六一…六七…七三…八○의順으로 明確한數字를設定할것을主張한다

右獨逸의提案은 歐洲各國의贊成을어더可決할모양이다

## 實業庭球리ー그
# 殖銀、府廳各勝

京城實業庭球春季리ー그第二日은 六日午後四時부터朝銀、殖銀所코ー트에서 行한바 다음의戰績으로 殖銀이遞信을、府廳이朝銀을 各各이겻다 이날殖銀의崔永生、魯炳翼組는 孤軍奮鬪하야全勝하엿다

【殖銀】　【遞信】

【第一라운드】
- ×(藤原、神田)3—4(朴源福、秋山)○
- ○(李相九、磯村)4—3(山口、古屋)×
- ×(洪承武、朴龍善)3—4(黃河秀、鄭士連)○
- ○(崔永生、魯炳翼)4—0(崔昌鍵、張甲麟)×
- ×(嚴寬龍、李鍾鎬)1—4(張元珍、渡邊)○

【第二라운드】
- ×(李相九、磯村)0—4(朴源福、秋山)○
- ○(崔永生、魯炳翼)4—1(黃河秀、鄭士連)×

【第三라운드】
- ○(崔永生、魯炳翼)4—2(張元珍、渡邊)×
- ○(崔永生、魯炳翼)4—2(朴源福、秋山)×

【府廳】　【朝銀】

【第一라운드】
- ×(晉基煜、崔秉燮)2—4(有江、山根)○
- ○(金石宗、森永)4—1(池田、福田)×
- ○(河東植、林成根)4—1(植木、市川)×
- ×(金東弼、赤松)2—4(庄司、中川)○
- ×(宋貞鎬、關)2—4(木津、原口)○

【第二라운드】
- ○(金石宗、森永)4—3(有江、山根)×
- ○(河東植、林成根)4—1(庄司、中川)×

【第三라운드】
- ○(金石宗、森永)4—2(木津、原口)×

## 떼杯英國優勝?
### 『질펜』氏의豫想

【加奈陀聯合通信】 世界庭球界의 豪華版떼비스·컵爭霸戰을압두고 벌서부터그豫想이人氣를끌고잇다 庭球王『질펜』氏가지난번米國雜誌「라켓」에쓴豫想記事를 보면 今年의優勝國은亦是昨年그대로英國이連霸할것이라고論하엿다 昨年英國의 第一人者「페리ー」選手가 濠洲에遠征하야「크로포ー드」等에게 連敗하엿스나 英國의 『오ー스틴』選手는 極히好調를보이고잇슴으로 가룸이가는누구나 困難할것이다 『최란지·릴』의第一候補는 濠洲일것이며 米國은 老練한選手들이 職業選手로轉向하기때문에 떼杯出場의經驗을가진選手는「옷드」一人뿐이다 이제今年 各國팀을 實力順으로列擧한다면 大略다음과갓다 ▲第一位 英國 ▲第二位 濠洲 ▲第三位 米國 ▲第四位 獨逸 ▲第五位 佛國 ▲第六位 체코 ▲第七位 日本

## 伯林올림픽
### 四十八國參加

【聯合伯林發】 第十一回 世界올림픽大會의 開催地인 伯林에서는式場其他를着着準備中인데 이번아이스랜드』『온과이』兩國으로부터 同大會參加의 申込書가到着하야 지금까지의 參加申請國合計四十八個國에 達함으로前回第十回大會의 參加國보다 六個國을 超過하엿다。

# 前室所生을虐待튼
# 無情한절문夫婦
### 다섯살맥이를때리고지지다가
### 마츰내警察에被檢

어린이날이니 아동애호 주간이니하야 어린이들의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긔를북도두어 주려는운동이계속되고 잇는이때에 듯기만하여도 소름이끼칠 전실자식학대사실이잇다—부내 금정(錦町) 팝십번지 류정봉(柳定鳳(三一))과그의안해 리복진(李福眞(二一))은 륙일오후다섯시 사십분경 그의딸류복순(柳福順(五))을 함부로 때리여수족을잘놀리지 못하게 한사실이룡산경찰서에 탐문되야 방금그경찰에서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인데 류정봉은재작년에 그의전처를 사별하고 지금안해리복진과결혼하엿는데 그와전처와의 사이에난 복순이가 항상서가시러워서 그의외가에 맛겻다가 부득이한사정으로 금년이월에 그의집으로데려온후로는 매일몃차례식 채찍으로때리고 인두로지지고하야 전신에스물몃곳이나 상처가잇서 취조하는경관의 눈물자어낼 형편으로 륙일에도 부부두사람이 어린그를함부로때리다가 때마친 순행중의 룡산서원에게 발각되야 경찰에붓들려온것인데 경찰에서는 세상에만흔의붓자식학대 전실 자식학대를경계하기위하야 엄중히 처벌할예정이라는데 경찰서에 보호를밧는어린복순(福順)은악마가튼그의부모의 손을버서낫이길분지 게원이주는 과자를바다먹으며서우이안심한안색을보이고잇다

## 面書記七名採用에
## 應募者七十四名

【榮州】 지난오일오전아홉시에영주군에서는군내면서기자격인정시험을 영주공립보통학교에서 시행하엿다는데 자격의 인증은채용될수보담 더될는지모르나 꼭채용될사람은불과 일곱명뿐이엇는데 응모자는 칠십사명의 다수이엇다

## 熱河에도土兵
## 六百名出現

【承德朝大日聯】 금주(錦州)송정(松井)부대는 일일부터 행동을개시하야 오일까지에 열하성란평현(熱河省灤平縣)에웅거하고잇는 공산군약륙백명을 토벌하야 토남동북산지대에서 이를 격퇴하엿는데 토벌대의 희생자는다음과갓다

▲戰死 步兵軍曹大野正雄、步兵上等兵二宮實 ▲負傷 一等兵藤本義喬、二等兵本田久一、河田靜夫、藤本政次

山岸監督、村上明

## 麻浦에兒屍漂着

륙일 오후일곱시경에 마포(麻浦)한강 도선장부근에 생후일개월된 갓난애 시체가하나 표착되엿는데 배꼽의탯줄까지 그대로 잇섯는데 소관룡산서에서는 전전(前田)부장외수명의경관이 현장에출동하야 검시중인데 혹시를의외 남가그엘매를 살해하야 강물에던진것이나 아닌가하야 목하엄중조사하는중인데 누구의 조사와그시체의 해부결과여하에따라 그내막이 어렴풋이 판명될것으로 자못주목을끌고잇다

## 頻發하는列車事故
# 一日三處서轢人
### 二名負傷、一名은死亡

날마다 간단업시생기는 조선의철도사고가 자그마치하루에 세가지식생긴이야기

▲륙일오전 아홉시 오십분경에 부산을떠나대전(大田)으로오든제이십일호렬차가 황간(黃澗)역압약일킬로쯤되는 지점에 다다랏슬때에 년령이십오륙세 가량의조선인남자한명이 긔관차에 치어머리가 깨어저생명이 위독한데신원은불명하며

▲동일한시오십분에 경성을처음떠나 신막(新幕)으로가든 제일백삼호렬차가봉동(鳳東)역에서정거할때에 조선인노인한명이두여고내리다가오른편가랑이를치이엇고

▲동일 오후두시오십구분에 호남선(湖南線)대전을 처음떠나 목포(木浦)로 가든 제삼백이십일호렬차가 리리、부용간(裡里、芙蓉間)대전긔점 구십일키로ー부근에 다다랏슬때에 철교위로 조선인남자한명이 건너가는것을 발견하고 철교직이가정거의 신호를 하엿스나 급정차가밋처지못하야선자가량바치여나가서 즉사하얏는데 신원은 불명하며렬차는 현장에서 약일분이나정거하얏다

## 平壤人口增加
# 半年內四千
### 年末엔十七萬突破豫想
### 細民層에는借家難

【平壤】 종회으로 발전하고 잇는 평양부의인구자적룡계가또다시그 발전의급격함에 놀나게한다 소화구년십일월현재 평양부의 인구는 평양 대동량경찰서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인구 십오만칠천팔백십일명、호수삼만사천백삼십오호이든것이 일년도지나지안흔 소화십년삼월십일일 현재로는 인구가 사천백사십이명 호수가일천백삼호나 각각증가하여 합계인구십륙만일천구백오십구인 호수 삼만오천이백삼십팔에 달하여 명실이 가티 실목만호를돌파한 대도시로서 경성다음가는 조선제이의 도시로 위세잇는 발전을 보이고잇다 일월이래 일일평균사십륙인호수 십이호식의 증가률이라는것을 보아발전의조스피ー드적임에놀라지안흘수업스며 이대로 금년말에 이르면호수삼천삼백호에인구일만이천륙백오십인을 증가하여 십칠만을유유히 돌파하리라는 예상이라한다

이가티 평양부의 인구는작년말부터 급격한증가를 보히게되자 차가난(借家難)을 보게 되엿고이런긔회를 리용하는 악덕가주도만허 경찰당국에서는 차가상황조사에 착수햇는데 원체가차가의부족을보는데다가차가임의앙등으로인

# 十六災害水組中
# 八個所復舊完了
### 移秧期前엔全部畢役

작년수재의 피해를만히바든 경상남도락동강(洛東江)연안의십륙수리조합의 복구공사는 작년팔월부터 총공비 일백삼십이만여원을 던저 착수하엿는데 이지음에 고곡(鼓谷)금해(金海)울산(蔚山) 밋사천(泗川)의 네조합이준공되고 오월중순까지에 도천(都泉)밀양(密陽) 하동(下東)이준공될 예정이다 남어지여덜 조합의복구공사도 류월중순 모심을때까지에는전부준공될 예정이다

## 不義男女에게
## 死刑과無期

갑부간부가 공모하야 본부를때려죽이후 금전까지빼아서가지고 다러난 함남덕원군풍하면 내백일리(德源郡豐下面內白日里) 김형조(金亨祚)(三三)와동김복남(金福南)의 강도살인죄에관한계속공판이칠일오전열한시경성복심법원에서적(荻)재판장으이등(伊藤)검사의간여에 구형대로 김형조에게사형 김복남에게무기의언도를하엿다

## 校長미워서
## 學校에放火

교장이미워 학교에방화하고 법정에선보통학교 교원이 잇다—황해도수안군연암면(遂安郡延岩面)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잇든 최영균(崔永均)(二八)은소화팔년십이월일동교의 교장실에방화를하고 수안경찰서에 체포되어 해주(海州)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다가티이년간 징역의언도를밧고 칠일에 경성고등 법원에 올복상고를 하엿다。 그런데 피고가 그와가티 자긔가 근무하고잇는 학교에 방화를 하게된 동기는 소화팔년 삼월삼십일 동교로서박(緒方)교장이신임하여오자 우연한 일로사이가맛지아니하여 어떠케 하면교장으로 하여곰딴곳으로 전근이되게할가하는게획을 꾀하고 잇섯다 그리하야 동년팔월오일과 구월륙일과구월이일에 세번이나 동교에 동맹휴학이 이러낫섯는데 그것을 배후에서 선동을 한일이잇섯다그러나피고의 목적한 서박교장은여전히전근이 되지아니하엿다 그뒤동년십월오일에는피고의동생되는 최성균(崔成均)이동교구내의학용품판매영업을하엿는데 거긔에 잘못이생기어 피고는 교장으로부터 단단한 힐책을듯고 복수할생각이더욱타올랏다。 때마침동월십일에동합부피로 부터 고하(古賀)시학관이동교에오는것을기회로동일아침여섯시교장실에잠입하야방화한것이다

## 哈巴嶺北方에
# 共產軍潛跡
### 人質十二名을데리고

【新京】(日聯聯合) 신경(新京)전로국자전에 의하면 경도선(京圖線)을 따르는 공비토벌중인 전중(田中)부대는 합이파령(哈爾巴嶺)동쪽약오리가량되는 황니하자(黃泥河子)부근에서 인질로 끌려간사람들이 만히 발견되엿다 그리고 공산군은두대에 나누어산악지대를퇴각중으로 조선인을 수령으로한부대는 황니하자의 동북방으로 만주인을수령으로한 한부대는 인질을데리고황니하자의 동부를향하야 퇴각중인모양으로 포로되엿든공군한명의 자백에 의하면 인질의인원은 일본내지인남자여섯명 녀자한명 조선인남자두명만주인남자세명모다열두명으로 그들은모다 결박을당하야략탈품의운반을강요되고잇다한다

## 天氣豫報
### 曇一時晴

低氣壓은 滿洲東部와 中部에잇서 徐徐히東進하고 또九州의海上에도 低氣壓이잇스며高氣壓은 日本北東海上에 據大되고잇다 北朝鮮은호리고 其他는日氣가조타 氣溫은江陵의十五度와 雄基의四度間에잇다 明日도호릴터이다

昨日最高 十九度二 今朝最低 六度四 今日正午 十八度七


第五回 第六回 籠球大會
# 全朝鮮中等校籠球大會
日時 五月廿四、五兩日
場所 延專코ー트
申請 五月十七日까지

柔道大會
# 全朝鮮中等校柔道大會
日時 六月一日
場所 延專道場
申請 五月廿四日까지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金銀高價買
大邱中央通
大邱金銀商會
電話一三六七

謝禮
當滸仙炭礦發火에際하야 各位의多大한同情을蒙하얏삽기에其感謝意를紙上으로表하나이다
昭和十年四月二十六日
鑛主 岩村長市
外職員一同 白

推薦廣告
梁斗熙君
右는山府會議員으로서最適任者로認하고玆에推薦함
有權者有志一同

# 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

# 오늘이다! 거륵한날!
# 북악이 팔을버리고 귀한애기들을 맛는다
## 장안이들끌토록 대성황을이룰 경무대는오늘 천사들의노리터

작든는 새생명의 행복된 우슴꽃이 피여질 제칠회전경성유치원연합원유회(第七回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는 금팔일로써 닥처왓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연록색 푸른잎이 나무가지에 기름지고 오월양광이 푸른하늘에빗나 생기발랄한 신생의 환희가 대자연 욱어진 金谷에 흘러넘치는 첫녀름! 이 뜻잇는 원유회는 시내 삼십유치원 원아 일천오백여명과 미래 어린이들의 선생님이될 경성、중앙양보육학교생도들의 찬조출동으로써 유서(由緖)깁흔 경무대(景武臺) 너른뜰에서 열리게되엿습니다。

경무대는 력사적으로 유서도깁거니와 송림욱어진 녀름철에는 그윽한 새풀향긔와 향구러운꽃긔운이 풍으득는곳이라 일긔조차명랑할것을 예상하는 이날은 우리의 어린이 천여명이 행복스런 하로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자는잠도 고요히 평화로운꿈이 깃드리는 어린이의얼굴이 방그레 순진한 우슴꽃으로 피여질때 그어린이의 간얄픈 발거름은 이날(當日)아츰 오전열시에 이 경무대 너른뜰로 자옥자옥 어엽븐 발자최로 옴겨질것입니다。

이리하야 그들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우슴웃고 노래를부르고 자미로운 유희를하며 하로를 보내는동안이 동산에 모히신 아버님과 어머님과 언니와 옵빠는모ー도 아는듯모르는듯 우슴이 터질것입니다

본사는 금년 이뜻잇는 원유회를 벌서 일곱번 거듭하엿거니와 년년이 자라가는 어린싹을 위하야 우리의 정성은 각유치원관계자 제씨와 보육학교당국자여러분의 절대의원조로써 성황을 일우어왓섯는데 더구나 금년은작년보다 참가 유치원수도 만코 따라원아도 만흘뿐더러

### 원아의훈련도

일층더 잘되여 자미잇는유희종목은 더한층 빗나게될것이므로 이날이야말로 조선에서는 볼수업는 천진스런어린이들의 귀엽운 모양이 요모저모로 보시는 여러분의마음의 새긔운을 내이게 할것을예상합니다

×

『미래는 청년의것이라』는 말이 잇지만 미래는 그야말로 어린이의것입니다 착트는 조선의어린이를 잘키우고 잘못키우는데 따러서 조선민족의 장래의 성쇠가 달린것입니다 그리하야본사는 이어린싹들이 매년매일유치원에서 웃고 뛰놀면서도 정서적인

### 노래와 춤속에

아는듯 몰으는듯 순정적으로커가는그들어린이를 한자리에모하노코 한편 그들이 배운 노래나 유희도 하고 한편 아지못하는 가튼동모와 사괴이게도하야 다가치 짐머진 희망만흔미래를약속하는 우슴이 그들의 적은마음에 소복히 담기게 하려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자녀를 두신분들은 다ー가치 이날아츰열시에 경무대로 모히시어 원아의 어엽븐재롱을 구경해주시고 그들의

### 천진한우슴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짓밟핀 조선의 어린이를귀히녀이시고 그들의 자유로운 세게를 열어주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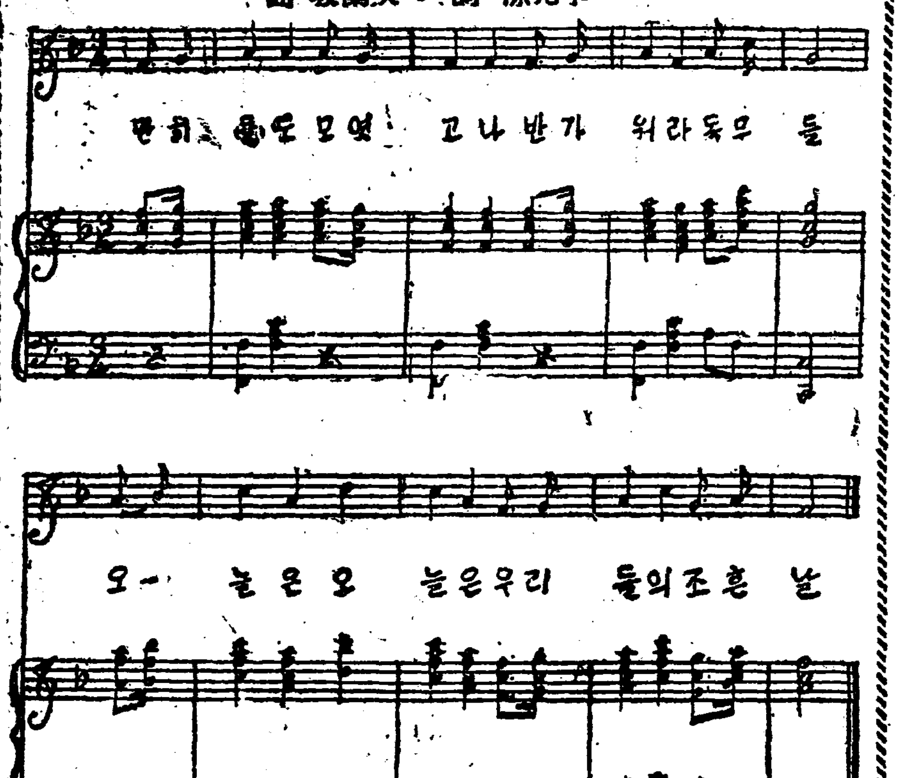
이날은 일전에 유치원아들이 조선일보의 기ㅅ발을 들고오전열시까지 모히어 보무당당입장식이 잇고 그뒤를 이어별항과가튼 유희종목이잇슬터입니다 어린이를 귀애하시거든 모ー두이 경무대로 모히십시오 이리하여 희망만흔 그들의우

合에 행복을 비러주소서

## 八日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에서二千園兒가함께부를노래

# 幼稚園園遊會歌

李光洙 詞・洪蘭坡 曲




### 조흔날
≡유치원 원유회노래≡

一
만히들도 모엿고나
반가워라 동무들
오늘은 오늘은
우리들의 조흔날

二
어른들도 오셧고나
우리보려 오셧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들의 조흔날

三
기운차게 노래하자
활발하게 뛰놀자
오늘은 오늘은
유치원 원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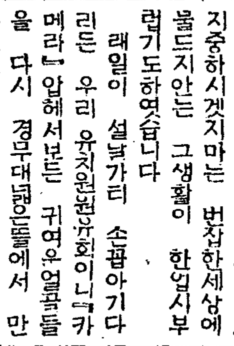
# 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를 압두고 서울各幼稚園巡禮

### ◇東幕幼稚園

마포일대의 백사장을 내려다보는동막유치원(東幕幼稚園)고목나무가지에도 새싹이도다나니 그듯러운그날에서 자라나는애기들은 얼마나 행복스러울까요 동식동식 짝을지어『큐삐』의춤을주는것입니다。청담기도하려니 [illegible]이엿습니다。

풍금소리에 맛추어서 울렷다 내렷다하는 두팔에 아름다운꽃발이라도 안겨주고십헛습니다。

이유치원은 원아가 사십명인데당일 출석수는 삼십구명이고 선생님은최성덕(崔聖德)김길순(金吉順)두분이라고합니다。



### ◇孔德里幼稚園

마지막으로 공덕리유치원(孔德里幼稚園)을차저갓습니다。

손곱아기다리는 유치원원유회에 누가더낫게하려는가 열심으로 연습하는중이엿습니다。사진도 그대로벅혓습니다。『내딸네야춤추자』이러케 조선의귀여운아들들은 춤추고뛰놀고합니다。새로운 행복과 깃붐의약속이 이딸과다리의한번움적이는 률동속에닥겨잇습니다。

이유치원도 원아가 사십명인데 당일출석수가 삼십구명이며 선생님은 김영선(金永善) 최정자(崔貞子)두분이시라고합니다。

### 유치원순례를 맛치고서—

『카메라』한개와 붓한자루로서 시내 시외에흐러저잇는 삼십곳에갓가운 유치원순례를 오늘로서맛첫습니다。때도 양춘이라 어린시절이니만치 착트는 초목까지도 어린이의행복된생명을 축복하는 단장과가티보혓습니다。

근심과 걱정이업고 불평과 원망이업는 천진그대로의 어린세계야말로 지상의천작(樂園)이며 하늘도가지지못한 아름다운꽃밧입니다。이러한 세계를 다만멧칠동안이라도 도라단이면서 이저버렷든 동심이새로살어나는것을 늣기엿다는것은 나에게는 성지의순례에나못지안흔 깃붐이엿습니다。

어느때에는 나도 그애기들과 가티놀면서 숫곱질이라도하고십헛고 어느때에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흘러나오면서 늬집애기인지 머리를씨다드머주엇습니다。

우리가늣기는 이러한깃붐과 이러한감동이야말로 어느교훈에서나 어느사교에선들어더볼것입니까? 이러한세게에서 무르녹는 인격만이 참으로신성스러운것이 아일가합니다 남의 귀여운애기를맛터보시는 보모님들의책임도 지중하시겟지마는 번잡한세상에 물드지안는 그생활이 한업시부럽기도하엿습니다

래일이 설날가티 손곱아기다리든 우리 유치원원유회이니『카메라』압헤서보든 귀여운얼골들을 다시 경무대뜰에서 만나보겟스나 해마다해마다 이모임을긔회로해서 미래의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광과 행복이점지되기를빌면서 이붓을놋나이다 (一記者)

사진—상은동막、하는왕십리

# 가지가지흥미잇는 오늘의『프로그람』

【오은 팔일오전열시부터경무대에서 열러질 제칠회전경성유치원연합원유회(第七回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는 어린가슴을졸려가면서 손곱아기다리는중에 각각이갓거워옵니다。본사에서도 가진성의를다해서 준비에분망하고 각유치원에서도 그날을귀약해서 무슨유희든지 작년보다는 훨신더낫게하겟다고 맹렬한련습을하느니만치 그날의광경은 과연얼마나찬란하게버러질는지『판도라』의상자와가티 우리네를 궁금하게합니다。『프로그람』을보서도아시겟지마는 특히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학생일동이 나오서서 가진유희와 묘기를보혀주신다니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의 서관을이루울것이며 보모선생님들의 률동유희라든지 유치원창선생님들과 자모되시는분들까지 경주와 겨기를하신다니 어느분이 일착을하실는지백화요란한꽃밧과가티 버러질그날의광경을다보는 당일의『프로그람』을 발표하면 다음과갓습니다。다가티 이유쾌하고 생긔잇는이날을 마지하사이다。

### 『프로그람』

一、入場式 爆竹
一、奏樂 樂隊
一、大會歌 一同合唱
一、式辭 會長
一、來賓祝辭
遊戲開始 爆竹
一、第一組 麻浦 崇仁 安國 (오뚝이)
一、第二組 紫霞 南大門 東幕 (꽃밧 피여서요)
一、第三組 新明 朝陽 崇二 (널뛰기)
一、第四組 梅花 孔德里 新門內 (큐삐춤)
一、第五組 桃花 昌信 龍光、(片片 지는햇빗ー樂隊伴奏)
一、番外 京城保育學校生徒一同
一、第六組 往十里 慈光 泰和 (비행기、엽낫의잉어)
一、第七組 和光 西大門 輔仁 (햇빗흔 ?、어엽븐비닭이)
一、第八組 三光 水標 甲子 (큐삐춤、오뚝이)
一、第九組 齊明 城北 (丁抹體操、나는늘튼합니다)
一、各幼稚園舞踊聯合律動遊戲 (메리만스)
晝 食
一、第一組 麻浦 崇仁 安國 (自由律動)
一、第二組 紫霞 南大門 東幕 (줄넘기)
一、第三組 新明 朝陽 崇二 (참새)
一、番外 京城保育學校生徒一同
一、第四組 梅花 孔德里 新門內 (오뚝이)
一、第五組 桃花 昌信 龍光、(우슴숨니다、오뚝이)
一、保育學校生徒紅白競技 (공굴리기一回)
一、第六組 往十里 慈光 泰和 (人形兵丁、비닭이)
一、第七組 和光 西大門 輔仁 (햇비흔 ?、어엽븐비닭이)
一、各幼稚園長競走 二回
一、假裝競技 (呼出競走一回)
一、番外 京城保育學校生徒一同
一、慈母競技 (旗取競走二回)
一、風船날리기 (各幼稚園代表)
一、萬歲三唱
一、閉式

## 비오면이튼날로연긔

### 구경오는분께 드리고시픈말

▼장내를 드럽히지 맙시다。피차에 보기 흉하니까요。

▼부녀나 어린이들을 위하야 남자어른들은 구경하는자리를 사양하십시요。

▼회중품을 주의하시고 갑나가는 금비녀등속은 안꼿고 오시는것이 상책입니다

# 라디오

### 七日(火曜)

◇同六時 實演 綠手會 伴奏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大宇宙와小宇宙(一) 京城高工助教授 崔允植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 播種及移植(一) 京農教諭 金雄珏
◇同八時 絃樂四重奏 一、로ー만스 모ー차르트作曲 二、아니르란舞曲 그리ー그作曲 三、칸쏘네타 멘델스존作曲 四、미누엣트 보케리니作曲 延專四重奏團
◇同八時三〇分 鶴念外四曲 一、鶴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金錦玉 朴山月
◇同九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弄界樂 四、界樂 五、編 金壽卿 李官鎭 伴奏 李明淳 大笒 水根 金枝鉉 金一宇

### 八日(水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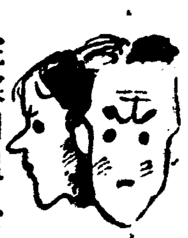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時調外 一、時調와男唱지름 二、辭說歌 三、제비가 四、興打鈴 李飛鳳 李粲玉
◇同二時 家庭講座 兒童教育과娛樂(三) 宋今璇
◇同六時 四重奏 一、匈牙利舞曲第五番…브람스作曲 二、다뉴브江…이빠노베치作曲 三、호프만의뱃노래…오펜바흐作曲 四、古典메누엣트…파데레프스키作曲 京城四重奏團 指揮 李鍾泰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大宇宙와小宇宙(二) 京城高工助教授 崔允植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 播種及移植(二) 京農教諭 金雄珏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併唱 沈相健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五分 獨唱과管絃樂 一、獨唱(1)歌劇『로스카』에서…푸치ー니作曲 (2)『胡蝶夫人』에서…『날사랑하는젊은이여…』푸치ー니作曲 二、管絃樂 『페르드의어엽분女子』(조르즈 비제ー作曲 (1)메누엣트 (2)보헤미안風舞曲 三、獨唱(1)歌劇『마논』에서『꽃의노래…마스네ー作曲 (2)歌劇『리골렛트』에서『오렐라…베르되作曲 獨唱 藤原義江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illegible]
◇同九時 連續古談 나폴라이시메르블렛트 愛玉(一) 申鼎言

### 五月九日(木曜)

◇午後〇時五分 놀양외 一、놀양 二、四巨里 三、中巨里 四、京발님 五、朴淵瀑布 金逸淳 任彩鳳
◇同二時 講話 佛教의聖誕과人類의文化 中央佛專學監 金敬注
◇同六時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宇宙와小宇宙(三) 京城高工助教授 崔允植
◇同七時三〇分(東) 國內放送
◇同七時五〇分(東) 國內아나운스와解說
一、解說 二、祝詞奏上 (二)下院議長 子爵 존・산기 鶴二上院議長 에드와ー드・호잇쓰로어 三、勤續좌ー지五世陛下 四、英國國歌(喇叭吹奏)
◇同八時二〇分 國內아나운스와解說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白髮歌 二、唱劇調 春香歌中 御使出道 宋萬甲 鼓手 丁元燮
◇同九時 連續古談 愛玉(二) 申鼎言

### 曆 五月八日 (水)
舊四月辛巳(小)六日 甲申・水・箕・平
▲祭祀에宜함
▲立夏 六日(舊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舊四月二十日)

## 유ー모어小說 望夫石 【五】
金熊超 作、畫



### 三寒四溫 (五)

이튿날 아츰ㅡ

회해끄려 긴장이 풀려 그런지는 몰라도 두내외의 기침이 여니때보다 좀 늦엇다。

그러나 명례는 남편보다 먼저 몰꺼지기전에 이러나 조반준비에 부산햇다。식모나 하나 두엇스면 한결 편하기야 하겟지만 단두내외 끄려먹는 솟곱질가튼 살림에 야단스러히 그럴필요도업고 설사 둔다치더래도 또 남편을 못미더해 그런것이아니나 젊은어멈은 엇전지 부지런고、좀은할멈은 매사가 구저서 콧물이 밥숫례 떠러질찌 안흘찌 센머리카락이 김치 건데기에 휘감길찌도몰라다 남편은 마음내키면

『식모하나 구해보지그래』

하고 아주 헝헝한 소리를하지만、사실 쥐꼬리만한 월급에 내집사람도아니요、더구나 남의사람을 부리고 할로 하기는못될편이엇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명례의시가말이아니지만 전에는 떵떵거리고사라서 명례는 업는집며느리로서의설음도잇섯지만 지금은 어엽도 업다。내외간 말다툼이나서 네집내집이야기가 나오면 머리를 찻동이고 악지를부린다

『흥우리집이 못사럿기로니엇재단말이요 나가든떼 주고치사하게더본일잇소? 우리집은그래도 원데』 돈노리해서 버청이나장해세하는 집안이야요 당신집은 만햇든거……그나마 지금은 다월해서업새버렷소』

갈로여미는듯한 말이지만 듯는재호는 의례히 자리를 피하엿다 그러면 명례는 남편의무던한데를 발견하고 이어자기한말을 후회하고마럿다。

간밤에 안먹고둔 찬밥이잇는지라 아침은 물이나 끄려 그냥저냥 먹을까하다가 남편위해서 한그릇밥을지엇다。 물의밥대중만하고 불을짓게 올려서 좀두시기는햇지만 남편이 되밥조와하는성미

『사람의입하나이 어디라고 그려우』

하고 예사로 듯는 남편에게 못아라들을 소리를하엿다 그리고 각금 이러케 생각할때가만햇다

ㅣ남자란 호주머니에 든돈계산은 밝아도 예산에는 깜깜무식이야! 한달에 단도십원이라도 드러오면 시량과찬용이며、자자분한데 나가는 돈겨정은 업습것처럼알지만 구리전한푼을 열쪽에 내여쓰는 무서운규모며、자기몰래 전당질을해서 규한대목을면하는것가튼것은 꿈에도모르는모양……그야 전당을잡혀도 래달에는 드러오는돈이 좀낫겟지! 하고밋기때문이야 그럭치만 밋는것이번이라 떠나려간것이 좀만헛다구。

자기는 지난김장때 츈추복잡힌것을 가지고 큰생색이나 내고 나한테 큰부주나한것처럼 야단이지만(참 그것도 이달엔 개표를 해야되겟군!)말을아니해 그럿치 나는 시집올때 해온 옷까지 떠나려간게얼마라구。시집올때 한창 자기집기구를 자랑하느라고 금비녀 가락지며 귀이개、말뚝잠、호두잠、뒷꼬지、비치개、 고리잠、과잠……등속례물로 해준것도 직업이업서 도라다닐때 나를 달래다시피해서 자기손으로 다갓다업새일은 꿈에도 생각안는 모양이야……요새 금ㅅ갑시올라 야단들인데 생각만해도 배가저려!

라 칠지안는것만 다행이엇다。

반찬은 싱금조국에 다조개ㅅ살을 너어 빽빽이끄린것 한접ㅅ바닥엇스나 두부찌개끈숫물에 올려노앗든것과 군내나는김치깍둑이뿐이다。

『끄니때마다 반찬때메 큰걱정이야! 참 계란한개남은것변장안에잇는데 국에푸려 드리리까?』

『잇거든 주어』

영양분이잇다면 송충이템뼈라라도 사양치안흘재호씨 밥상만 바드면 반찬때문에 이맛살을꼭 찡기가 만햇다。이런때마다명례는 죄업시 죄송스러웟다。

재호는 국에마라 밥을 몃술 뜨는듯마는듯 어제못본 석간과 조간신문에 대강대강눈을 달렷다。

ㅣ천기예보……고기압은 중국북부와 일본내지의 남해상에뻐치고 만주북부와 북해도방면은 기압이낫다。전조선은 정온하야 흐렷다개엿다하고 기온은 부산의십도와 중강진의일도사이에잇다 명일도 대체는 흐릴모양이나 차차떠듯해질것갓다。……。

재호는 혼자축으로

ㅣ그날씨도 꼭우리집안갓구나!ㅣ하엿다。

명례는 터벌거리고 나가는남편의 뒷모양을 물끄럼이 바라보텐니 갑작이숙는듯한애처로운 소리가나오다。

『양복월부가 끗나기전에 구두가 도돈을 달래는구나!』

出産 몬저 第一로
唯一의 人工母乳
ラクトーゲン
라구도겐
無二의 育兒料
新商品 —品進書則既—
消化不良에
エレドン 에레돈
Eledon
藥과榮養을兼한
病兒의哺育料
三重效果 治療 豫防 榮養
大阪市東區餘伏見町二丁目
乾卵食料品株式會社

## 小盆散積 ─(八)─

# 公眼

李殷相

夢窩 柳希齡이란이가 歷代의 麗代詩를 採錄하야 大東詩林이란책을 만들어던바 그序文에 歷代選詩者들의 失態를 嘲罵하고「詩不易作 亦不易選」이라해가며 自己의 所撰인 大東詩林은 果然 一點의 瑕疵도 업는듯이 自許하야 말하엿더니 後日에와서 그또한 다른이에게서 失態의 指摘을 바든일이 잇섯다 夢窩가 그의大東詩林에다 自己先人 櫟齋의詩를 七八十篇이나 뽑아너헛는데 위선 그量으로도 公正을 일헛거니와 더욱 그質에잇서서도 不幸히 孟浪無味한것들이라 저世宗堂가튼이는 櫟齋의「循栗生醉詩」에 對한 批評으로 餘地업는 攻擊의文字까지 남기엇다.

이제 다시 그와反面으로 이가튼一例가 잇슴을 보자. 上舍 辛永禧란이는 秋江南孝溫이 그의師友名行錄에도 紹介한바와가치 性質이 倜儻不羈하야 일즉부터 詩名이 中外에 播聞되채로 科名을 즐기지 안튼이엇든 더러 그의親父 文僖公의 詩名도 顯著하엿던것이다. 그리하야 다른이들이 그祖父의詩稿를보고 모두熱心으로「한번 刊行하는것이 어더냐」고 勸하엿스나 辛公은오히려 對答하되 「내祖父는 비록 文明이 잇시기는 하엿지마는 韓中에 雄視할 하나도이히 傳할것이 업스니 어찌 刊行할수가 잇스랴」하고 終是 上梓하지 아니하엿다하거니와 참으로 저櫟公과辛公의 일이야말로史上의 好對照가 아닌가한다.

詩는 남도 곳다할이가 잇슬때엔 그의聲名을 永世에 傳해주고저 애씀이 可한일이겟거늘 하물며 自家父祖의 일임에랴 그러나 眞實한 意思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時代고 어느民族이고를 莫論하고 人子된者의 아름다운생각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孝로부터 出發하야 孝에 그치고마는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一步進하야 社會를 相對로 주고받으는일이 되는境遇면 모름직이 社會的公眼에 비취어서 是非를 分揀하고 左右를 斷定함이 可할것이다. 夢窩가 大東詩林을 編纂케되는때에 櫟齋는 決코 夢窩의先人이아니요 一個의 作家的地位밧게아닌줄을 夢窩는 미처깨닷지 못하엿던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것은 獨히 한편은 事實에不過한이오 實로 中葉以來로 族譜와 門閥의 觀念이 漸漸해짐을따라 더욱더 이런通弊가 公行되어온것임을 알것이다.

우리들의 새로운 머리로서는 너무도 깨닷기가 어렵거니와 果然 自家의族系를 떠나 詩를 말한다하야 그 黨派를 떠나 그 政治를 行하기란 그러케도 可能치 못한일인가.

오히려 오늘에잇서서도 古文學者中에서 往往히 이色眼鏡을 벗지못하고 甚至於그門地의 高下를 헤아려그대로 그詩文의 輕重을 判斷하는일도 업지안흠을 보는것은 可嘆할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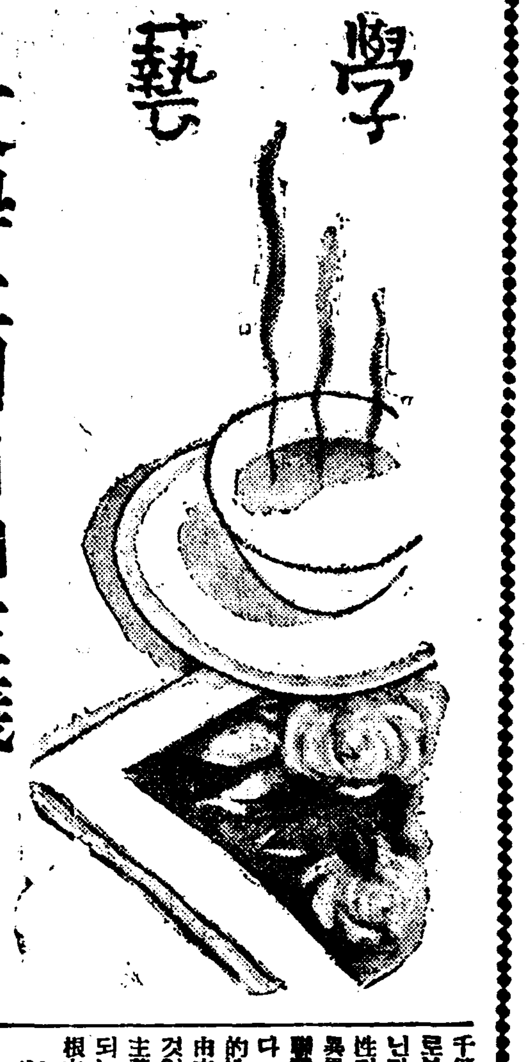
남의 祖先이라할지라도 그의 詩文이 朝鮮詩文史에 光彩나는것일진댄, 내祖先보다도 먼저하야 고 떠받들 推薦과公眼을 가저야하는 時代가 와잇다.

眞一 公眼으로 詩로 못돌아그族系의異同을잇고 그門地의貴賤을 알기때문에 그러함이라한다면, 우리는 이제 詩를論하기前에, 族系와 門地가 서로어떠하지를 몬저 어버리도록하는 訓練부터 먼저해야 할것이다.

李朝의 漢詩를 研究하기 爲하야선 거의文化의全部라고 할만한 이詩學이라는것이 오히려 必要한것이겟지만, 그러케도 因하야 累百年 묵은舊套가 갈스룩 거듭할것뿐이라한다면 오히려 모든것 다 烟氣속에 장사지내고 마는것이 더潔할일이 될것이다.

오늘은 果然 朝鮮사람에게 公眼을 要求하는 時代인줄을 分明히 認識하자.

# 學藝



## 文學上의自由主義 (下)

### 自由主義와 文學의 自由性

洪起文

在來로부터 文藝에잇서서는만흔流派가업지안햇스니 古典主義를爲始하야 가로되浪漫主義 가로되寫實主義 가로되象徵主義 가로되

**神秘** 主義等等의類다。이러한 流派들은 다各各自己네들이標榜하는바의主義를딸아서 그取材나 그描寫方法으로 다한께獨特한境地를 占領하게된다。그러나 지금의自由主義는 반듯이그와가튼獨特한境地를約束하는것이아니다。그點에잇서서 前記의모든主義와는 多少의差異를보이고잇다。要컨댄 지금의自由主義란 文藝그自體에對한思潮라고보기보담도 차라리外來的重壓에對한文學者의政治的思潮라고보아야 正當치안할까? 文藝思潮의背後에 恒常政治的環境이存在해잇고 또文學者各個人의政治思潮가 그作品에 적지아니影響하는것은 勿論이겟지만은그래도그兩者間에는 差異가잇지안한가? 더구나 自由主義文學과文學의自由性은 全然別個의

**問題** 다。그두가지의問題를混同하야서는 決코되지안는다。

×

本來文學이란것은 오즉한個限定된現實의描寫로써만 能事를삼는것이아니요 可能한世界의創造로까지 거름을내드듸게되는것이니 여긔서 그作家個人思考의多角性을 首肯치안하면 안될것이다。또創作이란것은 오즉想像으로써만 構成되는것이 아니요深刻한 體驗에서 出發하는것이니 作家個人環境의 多樣性도認定치안하면 안될것이다。그럼으로써 作家에게 가장必要한條件은 이多角的思考와多樣的環境을 消化시킬만한 自由性이라萬一 어떠한外部的 條件아래 이自由性이 抹殺되야서는 갑잇는創作이 絶對로産出될수업는것이다 한동안 蘇聯과日本을 通하야 唯物辨證法的

**創作** 方法이 만히論議되얏거니와 一定한哲學的方法論을 가지고서 創作에適用한다는것은 究竟失敗로돌아가버리고 말앗다。그러나文學의自由性이란 엇지반듯이哲學的方法論의 制限으로부터만 解除를希望할것인가? 그以上 몃百倍 몃千倍나며 政治的利害의 拘束으로부터도 脫出을 要求할것이아닌가? 이러케본다면 文學의自由性과 自由主義文學이 互相의差異를 가지고 잇는反面 互相의聯關을 가지고 잇다고 생각된다 即文學의 自由性은 그內在的性質에 關한것임에 反하야自由主義文學은 外來的實際에對한것인마큼 서로差異가잇고 自由主義文學이 外來的 重壓과對抗되는것가티 文學의自由性이그와根本的으로 對應되는마큼 서로

**聯關** 이잇다。실상自由主義文學의 出發에잇서서 文學의自由性이 相當히重大한 意義를가지고 잇는것이라고생각된다。그마치 忠實한眞理의探求를爲하야는 科學者들이不得已進步的 傾向을 띄우게되는것이나 다름이업는일이다。

×

그런데 文學의 自由性과自由主義文學이라는 두問題가 때를 거의가티하야 提起된것은 興味잇는現象이로되 그提起된 時機에까지는 一定한聯關이 잇는것이라고 생각해지지 안는다。本來부터다各各特殊한關係아래 問題된것이라 그저偶然한同時로 보아두어도無妨하다。何如튼 現下에잇서서 文學에 동을든이로서는 自由主義文學에對하야 좀더充分한理解와좀더正當한見解를 必要로한다。朝鮮이世界의 한部分이요 朝鮮文壇이世界文壇의한會거인 以上에는 그重要한傾向으로서의自由主義를 한번알아두지안할수업슬것이다。이제부터各大家의손을빌어서 各國의自由主義文學을紹介키로하겟다。나의區區한잔소리는 장차그분들이 그리실때에 對하야 미리부터발을準備하는폭일뜻 報饋할술까닭아 더以上蛇足을 내지못하게된다。(了)

## 뚱뚱한분에게 조흔소식

### 미국필라델퓌아로갑시요

이재부터는 뚱뚱보아가씨와, 도령께서 걱정근심아니하서도좃슴니다 사진과가티 미국필라델퓌아에 짹크、오브라인」씨에게가면 잘지도하야 아조호리호리한 양곰보둥이가티 될수잇답니다

## 朝鮮映畵의 압길을위한數語 (1)

A生

### 監督과 ─카메라맨─

항용 朝鮮映畵를가지고 캐메라맨의 技術만을 압섯다고하는 말을 늘-듯게되다 그 映畵에는 原作과脚色과監督의手法、俳優의演技들이잇슬것이나 캐메라맨만을 말하게되는아즉도 朝鮮映畵에는 그映畵의生命을左右하는 撮影이 不完全했든까닭에 언제나 이에不滿을가진편들은 撮影이조금만鮮明하야도 不安의얼마를除去하게되는까닭인지도모른다

캐메라의 技術은 監督手法에 左右되여 그監督에따라 캐메라맨이 頭角을나타내게되는例가만흔데 畸形的으로朝鮮에서는『캐메라맨』에게만 榮冠이라도온다함은 무슨理由인가

─◇─

여기서 監督者로나 演技者로서不快를늣기지안흘수업슬것이다 ─撮影이조하서─이말을캐메라맨自身이드를때 自己陶醉가되다하드라도 映畵一篇에잇서서 그 어느것하나가 뚜드러지게드러나도조치만 이映畵가失敗하게되는證左가되는 그論을을 캐메라맨도 가저야할줄안다

그런 까닭에─캐메라─가조하서라말은 結局 이映畵의여러가지 要素를 兩面으로두고하는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카메라맨』으로서도 그러케發光된일은아닌것이다

朝鮮映畵에 잇서서 監督은 自作、自監、自出演의外에는 監督이란 그人物에게 얼마나 自己의手法을 自由自在로驅使할수잇는 機會와 權利를 주엇는가. 資本主의『말씀』打令、俳優들의 干涉、카메라맨의 獨自的行動等이 過去며현재에 常習가티잇섯스니 여기서 제아모리 天分이잇는 監督이라도 自己의 眞摯한表現을 해볼수가 업섯스나 여기는 監督自身의 威信問題도 잇섯기때문인것도갓다

─◇─

監督이 들고서는 脚本은一種 손수건만치도 그役割을 못하엿고 主演俳優의 自己本位의 여러가지強要 또는 資本主의 無理解한指揮等等 監督의意思대로 되映畵가 그몃篇이나 되엿든가 여기에 監督者들의 態度도잇섯스려니와 그때의 朝鮮映畵界의 幼稚한時期를잘말하는것이요 여기서나오는 映畵의 兒戲的作品이라는 그結果가 不可避의일이엿슬것이다

─◇─

또는 이反面에 監督은 한번『큐-』를 들고섯스면 그것은監督自身이만이아러야하는秘密가티 撮影技師나 出演者에게 一言半句도 업시 妖術쟁이모양으로 號令만부르는이도잇서서 캐메라맨이 캐메라코-스를 엇떠케 잡어야할지 俳優自身은 自己가 엇떠한人物이고 將次엇떠케되며가는 事件인지도모르고 機械가티놀다가 무슨까닭에 失敗를하엿는지도모르게 결로나아갈수업게하는 그러한 怪異한監督도잇섯다

─◇─

어느나라 映畵처노코 原作者 脚色家監督、撮影技師、이사람들의 協議가 아니고는 映畵에着手하는사람이 드믈것이다 그러나 朝鮮에서는 原作者에게 諒解도업시 監督自身이 맘대로그 原作의 精神까지도 박구는일이 잇섯다고하면 이야말로 우울한에 英雄이라할수박게업스니 勿論失敗의큰原因이되고마는것이다 더군다나 朝鮮과가튼 아즉도 映畵가初期期를 버서나지못한이때일사록 製作者끼리 그作品에 對한研究와協議가업시 메가폰을 들고 카메라를잡을수업다 그러치안흐면記錄映畵『아랑』과가티『카메라맨』혼자서製作을하는수박게업스나그것은例外의일일것이다

─◇─

그리고 朝鮮서는 監督이 카메라도돌리고 카메라맨이 監督도해야만하는 朝鮮映畵界라하드래도 제각기그領分을 직히고努力해야만되다하면 아즉도『寶窟時代』의 카메라手法이 몰려가지 안흔이때에 카메라맨自身들도自己가撮影한映畵에서 藝術的感興을 이르키고싶허해야만될줄안다

朝鮮映畵撮影만이 아프로우리가 要求하는映畵가아니라면 朝鮮映畵에서 晝夜、午前午後、晴、曇 외氣分等時間的變化에對한 感覺을 要求하는 …

## 隨想 서울의面貌 (1)

金復鎭

서울이 어대냐? 朝鮮의中央이 어대냐?

봄바람에 속情이 떠서 三角山모퉁이를 돌어돌기도하고, 하느적거리는 버드나무가지에 마음이 얄구저 漢江을기를 타고나려오기도하고, 陽地쪽에 쨘쪽쨘쪽 새싹이트니 그리고 山골작이에 어름이 풀리니 서울을찻고 中央을 向하야 모여들든다

그러나 서울이 어대냐? 서울이 보고십고 서울이 그리워 山에서 벌에서 서울로 서울로 기어들 들건만 果然 서울이어대냐? 北岳山밋에 六曹가 櫛比하게 벌려잇든 그곳이냐? 노들江邊의 모래밧 近處냐? 淸溪川이 가루노히고 二十八宿와 左右로 네거리 큰길이 흘러흘러 치고 잇는곳이냐? 晩近 洋服店 쇼윈도-속에서 방끔뛰어나온 紳士의 가슴속인가? 여호털목도리속에서 빼쪽나온 女人네의 기름과粉으로 武裝한 얼굴가죽속인가?

─「百萬의 다리가 行進하는곳이여!」

이곳이 서울이라고 하며、

─「世界大都의 一隅에 宮殿도 建築도 만튼곳이여!」

이곳이 서울이라고도 한다。

果然 十年을 두고 百年을 두고 아니몃千年을 두고 創造하고 建設하여노흔 우리들의 서울、朝鮮의 中央이 이곳인가? 萬사람 千사람의힘人줄이 不斷히 뛰고 울쭉여와건만 우리의 땀 우리의 生命의結晶인 서울은 겨오치모냥이란말인가? 어느날 달빗이 흐린 저녁에 地殼이 문허저서 그의高貴한部分이 永遠히 흙속에파무처버렷는가? 일즉이疾風과가티내다른 百萬胡兵의 발굽에 짓밟히어 그의갑잇는粧飾이 사라저 버리엇는가?

─

그래도朝鮮의 中央은 서울일것이다。아니 우리의 서울은어때까지버젓한存在다。山넘어에서 바다건너서 배워도오고 發掘하여 뜻키도하고 創造하기도하여 統一하고 擴大하고 綜合하고 組織하여 다시 光明을주어 이것을 世界大의 鋼鐵으로 鍛射하고 호리지안흔 눈瞳子를 갓게하고 또 어제하로를 어떠케살엇스며 오는 한날을 어찌살든지 도모지 漠然한 人間의무리에게 崇高한理想을세워주어다。

## 漢詩

碧梧山人考選

### 桃花

二等 光州 洪鍾彦

千樹桃花繞郡城
碧油枝上發紅英
宿雨初晴珠露潤
晩暉斜映綵霞明
難辨仙源疑失路
重來玄觀恐傷情
風光流轉不相待
休惜林間秉燭行

評曰 全篇[illegible]

## 黑風 【25】

韓龍雲 作
金熊超 畵

### 지주와 소작인(二五)

영애는 날이갈수록 마음이 괴로웟다 영애는 자기와 정혼한 한국의아들과 한동리에 사랑솜으로 어려서부터 대밋을 가리타면서 자라낫다 어려서는 아모런줄모르고 자라나다가 나이 열서너살이 되며부터는 영애가 내외를하는까닭에 한국의아들과 함부로 만나지는 못하얏다 영애의나이 열여섯이 되얏슬때에는 한국의아들은 열아홉살이엇다 인생의봄은 그들에게도 와든것이다 그들은 서로사랑하는마음이 싹트기시작하얏다 그러나 그들의 서로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형식으로든지 터럭만치도 나타난일은 한번도 업섯다 다만 두사람의 숨은마음의 깁흔곳에서 자라날뿐이엇다

그러하다가 부모들의 주장으로 정혼을한뒤에는 그들의깃븜은 적은새암에 괴여잇는 보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넘처흘넛다 한국의아들은 겨우 소학교를 마치고는 구차한까닭으로 자기아버지를 도아서 농사일을하얏다 그는 특별한사내는 아니엇스나 얼골이 수려하고 마음이 량순하야서 가튼동무중에도 칭찬을밧는 사람이엇다 그리하야 한국의아들은 영애가튼녀자로 안해삼는것을 만족히 생각하얏고 영애는 한국아들가튼 남자로 편삼는것을 깃부게 생각하얏든것이다

그러다가 별안간에 폭풍우를 만난 어린꼿처럼 꿈에도 생각지아니한 파혼을당하고 사람으로서 백발이 휘날리는 륙십여세의 로인의첩으로 가게되는 영애의마음은 날을따라서 괴롭지 아니할수가 업는것이엇다

다만 자기가 은석의첩이 됨으로써 집안생활에 도음이된다는것과 자기가 장래에 호강하겟다는 생각이 다소의 위안이 되얏스나 그것은 잠시비처주는 겨울날의 따스한볏이 길게부는 찬바람을 이기지못하는것과가치 영애의 괴로운마음을 누를수는 업는것이엇다

은석은 인마를보내어 영애를 따려가게되얏다 은석의 친척되는사람이 교군을다리고와다 영애는 그리운 부모의품을 떠나서 아지못하는 낡은사람에게로 시집을가게되얏다 떠나는날 아침이엇다 영애어머니는 영애의 머리를 빗기고 영애의옷을 입혓다 그리하고 압뒤로 만저주엇다 은석에게서 온사람들은 시간이늣는다고 재촉하얏다

영애는 교군에 드러안즈면서 울기시작하얏다 번꼿으로 시집가는 녀자들이 떠날때에 우는것은 거의 상례엇다 그것은 그리운 부모와가족을 떠나고 정드른고향을 떠나게되는고로 감정이업는 녀자로서 울지아니할수가 업는것이엇다 그러나 영애의우름은 다른사람과가치 그것만은 아니엇다 영애의눈물은 한방울이 부모와 고향을위하야 흘리는 눈물이라면 다른한방울은 자기와 정혼하얏든 사랑하는사람을위하야 흘니는 눈물이엇다 영애어머니는 영애를부들고 울지말라고 마류하면서 자기는 더욱섧게 우럿다 교군군은 긴젼업시 교군을메고나간다 은석의 친척되는사람은 나귀를타고 교군뒤를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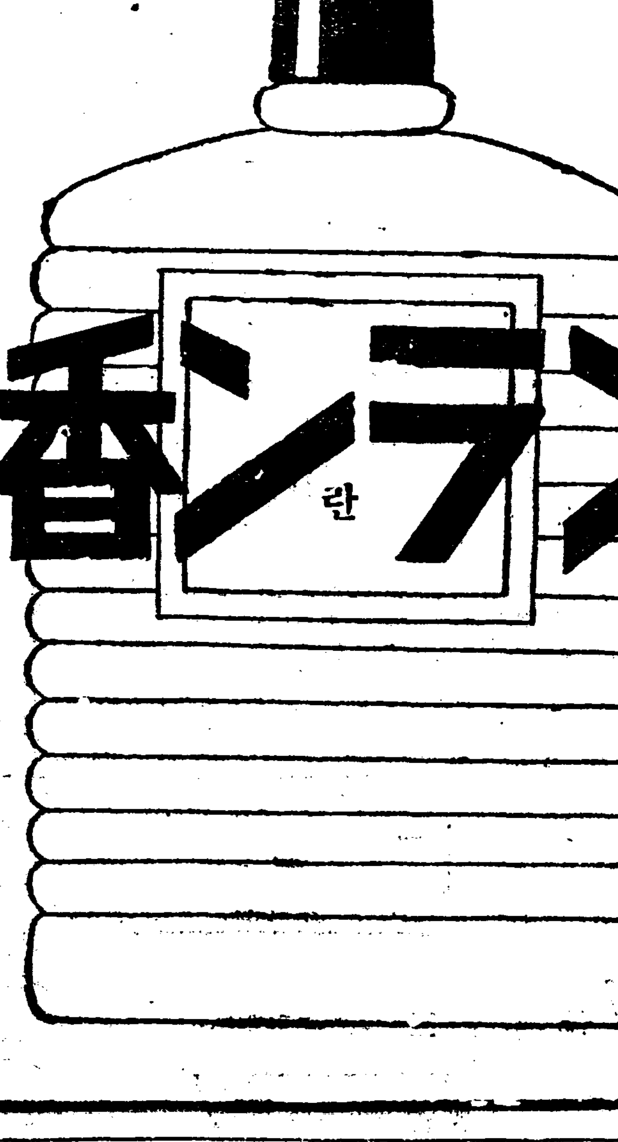
동리사람들은 남녀로소업시 모도나서서 구경을한다 그중에는 비단으로꾸민 사린교에 네패교군을 집너타고 천만장자에게로 시집가는 영애를 부러워하는사람도 잇고 정혼한것을 파혼하고 남의첩으로가는 영애를 비웃는사람도잇섯다

영애는 교군안에서 자기의집을 도리보면서 다시 한국의집을 바라보앗다 영애는 만흔사람의 구경하는중에서 한국의아들을 차저보랴 하얏스나 한국의아들과 가튼사람은 셋이나 보앗스나 진정한 한국의아들은 보지못하얏다 그리하야 마음은 다시 어지러워젓다 교군은 자기집에서 오리나가서 서호의긴뚝을 지나게되얏다 버드나무밋헤서 하염업시 교군을 바라보는사람이 잇섯다 그사람은 영애의교군만을 보는것은 아니엇다 교군을보다가 서호의푸른물을보다가 도라서서 먼하늘의 도라가는구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교군을 도라보앗다

칠빗가튼黑潤　꼿과가튼香氣

# ランラン香油

(란란)



頭髮의美容에 第一等　頭髮의化粧에 第一等

압흔淋疾은 ネオヂリン(네오지린)으로고침이第一

# ウテナポマード

(우테나포마드)

희망의新綠 빗나는青春

훤하고 산듯하며
爽然하고 高尙한整髮美
시언하게 잘갈게지는氣分
頭髮이 곱게자라서 더욱더욱
能率增進이 몃갑절!

ウテナポマード 三十錢、五十錢

말숙하게 毛髮을질기게하고
곱게하는純植物性포마-드

東京·本鄕 久保政吉商店

10.5-P.3

五月五日부터每日二回(正午十二時 三時半 七時半)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 우림이아가메론멘시이스監督 海洋活劇 波止場의天使 빅타막크 도로시웰主演 ◉파社作品全發聲日本版 알바드로지엘 監督 喜劇 女子누이엇다 에도만드로 빅타막크렁主演 ◉松竹키네마社超特作 現代劇 雙眸 甲中絹代 岡讓二 次週早定 大陣容劇團 黃金座大公演

仁寺洞 電光二三六 朝鮮劇場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五月三日より前期特別公開 新鮮吉葉かほる五月映畵壇に映く絶對大衆番組 RKO超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チヤーリイチヤツプリン氏 自作並監督主演映畵 裏街の英雄 笑ひと涙の一大喜劇 チヤツプリン一代の名演技 JOウヅマサ超特作豪華映畵 製作並總指揮‥池永浩久 勝見庸太郎監督第一回 オールトーキー 天下の伊賀越 早川雪洲特別第一回主演 諸口十九、三桝、河部五郎 尾上菊太郎 JOウヅマサ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海軍省後援 横須賀海兵團特別後援 色! 監督‥永富映次郎 俺は水兵 上山草人 海軍軍樂隊特別演奏 軍艦比叡日進‥御出動

櫻井町 本局 大正館

# 旱魃과強風繼續 咸南一帶農作憂慮

## 各都市엔飲料水枯渴

### 低溫과모진바람에幼苗는枯死

【咸興】 함남일대에는사월하순에 약간의강우가 잇슨뿐으로 그후에는 여시맹렬한바람과함께 혹심한 한발이계속하고 잇는데 전번비에 다소생기를어든 유묘(幼苗)도 급격히저하한 긔온으로 대개얼어죽어 고 그후에다시계속되는 한발로고사(枯死)상태에 이르럿고 또한베모(稻苗)도 모진바람에날려서 거이업서지다십히되어 농작은 벌서부터 미증유의대흉작을 예상케하므로 농촌민심은극히 공황한중에 싸여잇스며 각도시에는 음료수난으로소동중이다

### 江西地方에는 大小麥이枯死

【江西】 평남강서 지방에도 오래동안한발이 계속하야 맥작은 전부말라죽게 되엿스며 압흐로 사오일만더 가믈이계속하면 양맥은물론이고 기타농작물도 농작을 면치못하리라하야 농가의 인심은 극도의 불안에 싸여잇다고한다

# 作權을無理剝奪

## 作權兼처서、집장사、作人等舍音걸어呼訴

【公州】 악사음의 착취를 절메시겨 소농작인의생활을 보장한다는 농지령이 실시되엿것만 악사음의 착취는 가일층가혹하야 공주군신하면봉암리(新下面鳳岩里)의 소작인들은 방금림농시에 무리하게 소작권을박탈당하고 유리거산으로 갈곳이업시되여 공주지방법원소작조정회에 호소하게 되엿는데 지난사월에 전긔작권을박탈당한소작인 임진호(任鎭鎬)김재진(金在鎭)유건식(兪健植) 김수진(金壽鎭)엄형섭(嚴亨燮)임성호(任成鎬)김문숙(金文淑)등칠인이 법원에가 연서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재판소의처분을 바라는데 전긔소작권이동의사실를 탐지하면 전긔 신하면봉암리는 대전영목(大田鈴木)이란 사람의 토지를 소작하야 연명하는바 얼마전에 그동리사는 밤모가 그토지를 례산윤인석(尹仁錫)에게 이매시기고 그사음이 되여가지고소작권이동、집장사등으로 리익을 취하야 시가십오원가격되는 집을 논(畓)팔두락 소작권과 아울러오십원에 매도하며 그동리정창희(鄭昌熙)의 소작답이 십오두락을 박탈한결과 하는수업시 류리하게되자 그두사람의집두채를 매입하야 그집과소작권을아울러 전매하기로하는등 교묘한수단이 허다함으로 전긔칠인의소작권도 박탈하야 류리되는것이라한다

# 鐵原地方에 大雨雹

【鐵原】 철원일대에는 금번에 강우가 부족하야 수리조합(水利組合)구역외에 토지는 파종하지못한곳이만하 일반농가에서는 근심이적지안튼바 지난륙일 오후이시경부터 날이흐리며 비가오기시작하드니 동이시반경부터는 비가갑작이 우박으로변하야 동구리알만한 우박이 쏘다지기시작하야 일시간여를 계속하엿는데 농작의피해를 난면이라고 우려중이라고한다

## 泗川水組總代、

【泗川】 경남사천수리조합은창립한지벌서 (十)사개년으로 평의원의임긔가 만료되여 이를개선할제이회총대회를 지난사일 하오두시경에 조합장최여규(崔汝圭)씨개회사로 개최하엿는데 당일출석한총대는 총대다수인 이십팔명이엿고 위원장이 결대다수인 최신여장이엿스며 평의원선거에 드러가 전형위원오씨가 선발되여 역원을 선거케한바 개선된 평의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評議員‖小田切厚 東拓會社 西野松次 李禎秀 白南在 秋澤樺太郎 鄭鎭植 崔炳徽 崔道鄭 金恒吉 總代員‖金夢起 崔永鵬外八名

# 楮里地方에도 旱魃이繼續

【楮里】 리、지방에는련속되는한발로인하야맥농의피해가 적지안어 상당한보리수확가량의 감수를 만면치못하리라고하며 압흐로더한 벌이계속된다면 모판과이앙에까지도 큰영향이밋게되여 일반농가에서는 크게우려중이라고한다

## 汽車에墜落慘死

【裡里】 지난사일오후팔시이십구분리리역도착인 전주발 제구백팔십오호열차가 리리역과의거리 칠백오십미돌가량되는군산、전주행의 분긔점에 도착되자 정읍군태인면(泰仁面)에두고 전주까지나도갓라는 리래화(李來化)라는사람이 정거장인줄알고 뛰여나리다 일편다리가 차바퀴에 치어절각이되엿슴으로 즉시 리리철도병원으로 다려다가 응급수당을하엿스나 오전령시경에 사망하엿다고한다

# 九千餘圓工費로 初同水組를復舊

【密陽】 경남밀양(密陽)군초동수리조합(初同水利組合)은해마다수해로 다대한부채를지고 그정리를 하지못하야 조합자체의 곤액은물론당국에서도 그수습에 곤난하야 해산설까지잇서 파동과에 다다른 최근까지 작년수해로인한 피해공작을 복구공사의 허가가나지안어 일반지주들은 초조한중에 잇는바 지난사일 상오일에야 복구공사인가가 나와지난오일오후 한시부터 동수리조합 사무소에서 사여인부는 재민총사원회긔을 조건으로복구공사입찰을한결과 김해(金海)김경문(金敬文)씨에게로구천오백원에 락찰되어오는 육월말에는전부 준공하리라는데 이로써 동조합은 위선 해산의위긔를 면하고갱생의 제일보를 밟게되엿다한다

# 洛江護岸工事 支障업시進行

## 安東全邑民의死活問題로 急速實施를期待不已

【安東】 총공사비삼십사만원으로 작년칠월협 대홍수로 여지업시결피된 안동읍남하(南河)의 락동강제방을 연구히안전케 만들기위하야경북도에서는 대구룡강조(大邱龍岡組)에청부를맛겨 공사에착수하엿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이제안동종유의 대공사이며 전안동읍민의 사활문제인마큼 급속실현을 요망하고잇다는바 청부자 룡강조안동출장소에서는 전미농의 열렬한부르지즘에 감하야 착착공사를 진행하고잇다는데 법흥(法興)서부터 안동교(安東橋)까지 그웅대한제방공사의 모양은 미래대안동건설에잇서서 다시는 홍수의침범이 업스리란 생각이 보는자로하여금 직각적으로 갓게한다하며 룡강조로병문(魯炳文)씨의 열성잇는감독에는 시민의감탄함을 마지안는다는데 하로인부려이 사오백명식이나된다한다

# 綠陰지는太白山 尺餘의白雪로化粧

## 怪候! 農作物全滅狀態 火田民生途가漠然

【春陽】 지난일일밤부터경북춘양지방에서 긔온(氣溫)이 갑작이저하하면서 폭풍우와 백설이나리기시작하여 이일오전에겨우 끄첫는데 각화사(覺華寺)뒤산에는 백주에도 녹지아니하고 일긔는여전히 치워서 초여름이라고는 감각할수업게되엿스며 요사이는 밤마다서리가나려서 감자보리등 농작물에 피해가 막심하며 고원지대인태백산(太白山)에는 척여의 백설이싸여서 북국방산지대와 흡사하며따라서초근목피로연명하는태백산화전민의생도가막연하다고한다

## 江西邑에火災 一棟三間全燒

【江西】 평남강서군강서면덕흥리 령목상점(江西郡江西面德興里鈴木商店)의소유가옥에서 지난사일오후칠시반경에 불이나서 삼간을 전소시켯다는데 화재의원인은 휘발유곤로에서 실화되엿다하며 손해액은 천원가량이라한다

## 咸興女高普 新入生募集 定員은五十名

【咸興】 함흥녀고보가사일부로인가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교에서는 림시로함흥고녀(咸興高女)의교사일부를 빌려서 수업하기로되엿는데교장은 함흥고녀교장하내(河內)씨가 겸임할게 정이며오는이십삼사량일간 제일회 입학시험을행하다하며입학허가자는 오십명원서제출긔일은오는이십일까지라고한다

# 勿驚! 十七歲少婦 醉中男便을絞殺

【新義州】 평북정주군곽산면염호동(定州郡郭山面鹽湖洞) 김창석(金昌錫)의처강상률(康相律)(一七)은 작년삼월이십이일부터 그남편과가티 살림을하여오든중 남편은 주사가심하야 술만마시면주정을하고 난폭한행동을하야 가티살기가 실혀젓스나 엇지할도리가업서서 남편을죽여버리기로 결심하고 그긔회를기다리고잇든중 지난달 이십삼일밤도 역시그남편이술을 만히마시고주정하다가 정신모르고 잠이드럿슴으로 허리띄로그남편의목을 졸라죽여버렷다 그이튼날아츰 강상률은 그곳경찰서에 잡혀 취조를밧다가 지난사일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얏다한다

## 新義州公普校 保護者會盛況

【新義州】 신의주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사일오후七시반 동교내에서 리희적(李熙迪)씨 사회하에 보호자총회를 개최하얏는데 회집자가 일천여명에달하야 근래드물게보는성황이엿다한다

# 尙州郡內二個面 河川工事遂起工

## 貧窮農救濟가目標

【尙州】 상주군에서는작년수해로 인하야피해가만흔이안(利安)면과외서면(外西面)의양개면민의생도가 막연함으로 전긔이안면이안천제방호안공사(利安川堤防護岸)와외서면 외서천제방호안공사(外西川堤防護岸)를지난달 십구일급 이십일에 기공하엿다하며 이안천 공비 오천사백원 외서천삼천팔백사십오원 합구천이백사십오원이며 인부사역비는 오천삼백원이라는바 이에사역할인부는 궁민구제사업을 목표로함이라야면 빈농민급 궁민들을전부 사용하리라는데 양면빈궁민은 그나마입금을바다연명한다고한다

## 安城市民運動 盛況裡에終幕

【安城】 지난오일오전十시부터안성보교운동장에서 안성시민운동회를개최하엿는데 관중이 무려만여명에달하야 대성황을 일우엇스며전적은다음과갓다

長距離競走 一着 趙明熙 二着 金順在 三着 金敬俊

自轉車競走(萬五千米) 一着 張三峯 二着 周好根 三着 任花仲

(五千米) 一着 李四千 以下略

## 振靑學院開院式

【平澤】 지난륙일오전십시에평택진청학원의입학식을 거행한바 신입생은입백오십명에달하엿다동회석상에서다음제씨는 동회원을위하야 긔부금을 자진희사하엿다한다

鄭敬天五十圓 山口晋三十圓 朴順伊女史十圓 金鍾萬四圓 兪致鳳五圓 鄭寅昌五圓 孫昌宇二圓

## 愛護週間盛況

【新昌】 한남신창에서는 년년히 실행하여오는、오월어린이날을전후하야에 호수간을 금년에도 실행코자준비중이든바 지난사일당지공의 리형학(李亨學)씨의、유아건강진단을시행하고 의일인오일에는 당지보통학교강당에서 건아표창식과 리형학씨의유아보건강좌가잇슨다음 보통학교아동을 선두로각관공서금융기관유지참집하에시내를 금신풍리에유아애호선전긔행렬을 하엿다는바 예년에비하야 성적이대단량호하엿으며 입상한 아이는 아래와갓다한다

孫乾龍(二年) 朴曉林(二年) 宋成植(二年)外七名

松の實キャラメル

# 그女子의一生 【98】

春園 作 夕影 畵

금봉은 눈을 들엇다。 긔도실 정면에 걸린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그린 예수가 하늘을 우럴어 긔도하는 화상이 금봉의 흥분된 눈에 띄엇다。 이 긔도실은 누구나 긔도하기를 원하는 때에 들어와서 쓰도록 된 방이다。 조고마한 방인데 가운데는 무릅을 꿀고 가슴을 걸치고 예수의 화상을 우럴어볼수 잇도록 판장으로 카운터처럼 만들어세웟다。 한창 인생의 번민이 만흔 이십세 안팎되는 여학생들중에는 이 긔도실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려서 참회도 하고 빌기도 하엿다。 금봉도 혹은 입학재를 위하야、혹은 심상태때문에 이 방에서 여러번 긔도도 하고 울기도 하엿다。 그런데 이제 금봉은 삼천여원의 지전을 들고 이방에 잇다。 예수의 화상이 눈에 띄울 때에 금봉은 한참이나 망연하다가 문득 손에 들어든 지전뭇치를 내여 던지고 긔도하는자리에 끌어안젓다。

『하나님! 이 어린 딸을 불상히 역여주옵소서。 시험에 들지말게하옵소서。 밋을 곳 업는 어린 령을 손소 어루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야 십자가에피를 흘리신 예수그리스도께옵서 이 어린 령에게 굿센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천사와 가티 깨끗하게 일생을 보내게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하나님! 지금 심상태는 욕으로 저를 유혹하랴고 손선생은 돈으로 저를 유혹하랴나이다。 이 유혹에도 넘어갈뜻 넘어갈뜻、저 유혹에도 넘어갈뜻 넘어갈뜻、어리고 약한 이 딸을 붓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제 압헤 시컴한 굴혈이를 보나이다。 크게 입을 버린 지옥을 보나이다。 제 육신과 영혼을 다 잡아삼키고야 말랴는 두 마귀를 보나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이 어리고 약한 딸의 발은 마치 비스듬한 령롱판에 선것모양으로 그 시컴어코 무시무시한 지옥의 아가리를 향하고 조춤조춤 미끄러져 나려가나이다。 하나님、어리고 약한 딸을 불상히 역기시와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붓들어 올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고 금봉은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럿다。 금봉의 눈에는 심상태와 손명규가 금봉을 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때에 금봉의 옷은 가리가리 찍기고 몸은 피투성이가 된 양이 보이고、또、어떤 진창에 금봉의 해골이 산산히 흐터저잇는 양도 보인다。 금봉의 몸에 소름이 끼치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럿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모든 유혹을 이길태야요。 심상태의 유혹을 이긴 모양으로 손선생의 유혹도 이길레야요。 그리고 저는 깨끗이、깨끗이、천사와 가티 깨끗이 이 세상을 살아갈레야요。 아모리 고생이 되기로니 그것이 무엇이야요? 제가 깨끗이깨끗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속에 저를 밧아주신다고 하셧지요? 저는 그 언약만 밋겟습니다。 그 언약을 밋겟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속이시거나 유혹하심이 업스시고 하나님의 말슴은 참되십니다。 하나님! 저는 깃버요。 힘을 어덧서요。 아모 걱정 업습니다。』

이 모양으로 말하드시 긔도를 올렷다。 금봉의 눈에 눈물이 것기고 몸에 소름끼치던것도 슬어젓다。

금봉의 압헤는 문득 죽은 어머니 모양이 떠오른다。 그 불상한 어머니。 어려서는 가난으로 고생、자라서는 이 사내 저 사내의 놀림ㅅ감으로 고생、남편 이라고 만나서는 아들딸 나아서 길러주고 재산과 청춘은 몽땅 빼앗기고 그리고도 가초가초 구박소박을 밧다가 놀롭에 빠저죽은 어머니。 그다지도 참되고 올코 깨끗한 사람이 되어보라고、어린 금봉이가 보기에도 눈물겨도록 애를 썻지마는 그 남편에게 조차 알림밧지못하고 하늘에 사모친 한을 품고 죽은 어머니。 울음ㅅ가에 노힌 신 한 켜레。 그리고는 어머니를 일코 발갓 『엄마、엄마!』하고 울다가 울다가 말라죽은 어린 동생 욱봉이。 또 낫살 먹을사록 어머니 불상한것이 늣겨지고 아버지 무도한것이 한되어서 미치다십히 된 욱바 인현이、어머니가 그러케 사랑하던 거믄고를 고심팔담하야 차자내어서 사다노코 곡조도업시 줄을 올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던 올바 인현이——이런 모든것이、생각이 나매 잡시 시름이 금봉의 눈물을 다시 소사흐르기 시작한다。

# 『미래는우리의것』

# 어린이날記念式 各地에서大盛況

【光州】 명랑한오월의하늘밋에 구름한점도업시 오죽 훈훈한봄바람이 향기로운 오늘의첫공일 ―거룩한제십삼회어린이날의긔념식은본사광주지국주최하에 사립광주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참가단체 오개단체、아동천여명과 부형수백명의 참집으로동일오전십일시에 최곤일(崔坤一)군의 사회하에서『어린이날』노래합창이 끗나자 본사광주지국장 고재섭(高在燮)씨의긔념사와소년소녀의선서문랑독이잇슨뒤최원순(崔元淳)、김태오(金泰午)량씨의 축사가잇섯고 이여 우량아동표창을한후어린이날노래및만세삼창으로 긔념식을마치고원유회장인 광주공원(光州公園)으로 옴기어 자미잇는 노리와 일반아동에게 각방면유지들로부터긔증한학용품과식품을 풍부히 분배하여주고 동일오후이시경에 산회하엿는데 동긔념식에금품을 긔증한상점은다음과갓다

東亞婦人商會、大興堂藥舖、天一藥房支店、和信商會、自轉車選手會、東洋商會、金城商會、普城商會、信昌商會、德昌商會、文化時計店、保險堂時計店、興商行支店、光明堂書店、鮮光社書店、光城洋靴店、光信洋靴店、秋良任商店、大陸고무商會、動靜社

【鎭南浦】 진남포의 어린이날긔념은오월오일 오후네시에 부내각교회 유년주일학교 생도와소년회 소년척후대등 십여단체아동삼천여명이 득신학교 운동장에모히여 진남포아동협회회원박민관(朴敏觀)씨사회로장엄한긔념식이 끗난후아동의대행렬선두로부내일주의 긔행렬을하는일방비라를산포하여 일반에게 어린이에대한 인상을주엇스며 륙일밤에는 공회당에서아동천여명이 회집하여 한경동(韓景東)강정숙(姜貞淑)외 제씨의동화가잇서서 대성황을일우웟다고한다

【咸興】 오월오일『어린이』날에는 함흥에서도함산유치원(咸山幼稚園)의 전진한원아 이십여명이한래항(韓台桓)씨외 오명의 보모의 인솔하에 『아동애호』의 긔를두손에쥐고 아동악대들의 주악으로 시중행렬을 하여성황을이루엇다

【方峴】 평북방현에서는방현소년군에서 일주일전부터 어린이날에관한 모든준비를 해오든바당일에는 여러소년단체가 참가하야 선전비라를 산포하면서 시내를일주하고 오후일시에 성대히긔념식을거행하얏는데 당지에서는 처음보는 성대한긔념이라고 일반은 자못흥내엿스며 그리고 당일표창바든아동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少年 朴興京 安德俊 李雲根 少女 鄭信寶 吉寶丹 安春玉

【發安】 수원군발안시(發安市)에서도오월첫공일인 지난오일을당하야 어린이날을 성대히거행하엿다는데 당일 참가아동이무려오백여명에 달하야 대성황을일우엇고 표어긔등을 좌우에라렬하고 어린이날노래를 고창하면서 시내시외를 마치고 바르발안시장에회합하여 주악과 어린이날노래합창이끗난후 사회제씨의 축사가잇고 이어복과자(福菓子)를 분배한다음 조선어린이날 만세삼창으로 폐회하고동오후두시부터는 발안코-트에서소녀군홍백량군의 축구시합이잇섯던바 일대이로(一對二)로 백군이 석패하엿다하며 당일포창된소년소녀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優良少年少女‖韓永粉(一四)崔其允(一五)朴彩順(一五)金福順(一七)嚴明燮(一四)徐廷三(一五)林共順(一七)金龍奎(一四)盧玉龍(一三)朴昌先(一三)

【楊口】 『미래는우리의것』이라는표어를 내걸고 강원도양구에잇는 당지유치원과 보통학교에서는 오일오후일시에어린이날노래를 고창하면서 시내를일주한후 이어 수십종목의 간단한운동회가 잇섯고 계속하야 건강아동심사회를개최한바 진단한결과 수상자는 다음과갓다。

一等黃昌燮 二等朴文燮 三等金尙鉉

【郭山】 어린이날을영원이긔념하기위하야곽산천도교종리원소년회에서는어린이들을다리고긔빨을날리며장사진을 지어시내를일주하야 긔세를올리면서 릉한산성(陵漢山城)까지행진하엿다고한다

【川內里】 함남문천천내리에서는오월 오일어린이날 긔념을천도교문천 청년회 주최와본보분국급동아분국의 후원으로 삼백여명의어린이들이며 수만흔 관람자가집합하야 성대히거행하야 식을마친후다과회까지 잇섯스며 오후부터는 삼백여명의 어린이들이천내리일이구 거리로긔행렬을 하면서 어린이날 창가를고창하다가 제각기헤여젓다고한다

【大田】 충남대전에서는어린이날을 긔념하기위하야 당지대덕유치원을 필두로용진、일광、대영、소제(勇進、日光、大榮、蘇堤) 각사립회원생도 오백여명이 오전십시에용진회원에모히여 대전 시가지를긔행렬을 하는동시에 선전비라를수천매를산포하며 성대한 어린이긔념을하고 오후일시경에 어린이만세삼창으로폐회하엿다한다

【盈德】 경북 영덕군에서는 어린이날을 긔념키위하야 제반준비중에 지난사일 영덕시일(市日)을긔회로 영덕유치원 보통학교 소학교각신문지국 관공서기타 시민 이천여명이 긔행렬을하야장사진을 라렬한바 일반에게어린이애호에 만흔각성을 주엇스며압으로 오륙량일에도 각학생들에게건강진단과 위생강연등을 개최하엿다고한다

## 兒童愛護週間

【竹山】 경긔도죽산에도유지들이시내유아 오십여명을 소집하야죽산의원장최창선씨에게건강진찰을 밧게하고유희품을 일일이제공하야유아애호하는의미를표하엿다한다

【綾州】 지난 오월오일 어린이날를 긔념하기 위하여릉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릉주면주최로강화회를 개최하엿는데 면장주재석(朱在奭)씨의 강연이 잇슨후백여명의 유아에게 과자일봉식을난우어 대성황을 이루엇다고한다

【通川】 금번 아동애호주간에 통천에서는 여러가지로어린이를위하야시내각단체와주최당국에서사업을아래와가티진행하엿다한다

五日 旗行列、六日 講演會、七日 健康調査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압흘때…… 노-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 노-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 노-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조치못한때나

이노-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때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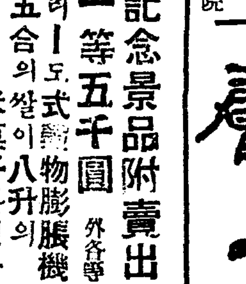
ノーシン 노-신

| 定價 | |
|---|---|
| 四包入 | 二十錢 |
| 七包入 | 三十錢 |
| 十三包入 | 五十錢 |
| 三十八包入 | 一圓 |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好職業

돈버리大王



大型各種(가다로구進呈)

記念景品附賣出 一等五千圓 外各等

리-도式穀物膨脹機 五合의쌀이八升의 米菓子가된다 製菓法傳受함

男女老若不問自宅內職兼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協文社

大阪市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 藥書를申請하면 胃腸을健全히하며 害업시身體肥滿히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弁町七十一 小川藥院

皮膚 チャージ 차-지

근질근질한皮膚病 무좀、옴、습진、음질、헌데、부르튼발、터진、手荒、빈대、모기버룩물인데에쓰시라!

卅錢、五十錢、一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문둥병

二十年三十年간困難한분은 眞正한家傳의良藥있음 只今全快못해困難한분에게右良藥의內容病理說明書及全快者의感謝狀添付 無代送呈함 大阪市新川三丁目六五五 大福堂

月遲 月刊雜誌·小說書籍 目錄送呈·新聞名記入의事 東京市神田區錦町一ノ五 振替東京大九一三三 金港堂書店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五月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名匠 빅터、쉬어칭거 監督作品 名星 그레스、무어 孃主演 사랑의一夜

◆코롬비아超特作日本版 프랭크、캐프라監督 어느날밤 생긴일 크라크、께이불氏 크로데트、콜벨 孃 主演

●大衆全發聲映画 靑年よ起て

次週封切 未完成交響樂

全鮮第一映画殿堂 電光八一 團成社

五月三日より當館獨占大封切 若葉の香り高き新綠五月、絕好の映画シーズンニ送るパ社特選映画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明日なき抱擁 監督ミッチエル、ライゼン 主演フレデリック、マーチ 人生に執着する人類の根本義は果して何か?ああ戀!!死よりも强きその愛か人生最大の魅力なのだ 永遠に明日なき抱擁を求めて自分を總幕ふ乙女心!

二、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彼女は僕を愛さない 監督エリオット、ニュージェント 主演ビング、クロスビー、ミリアム、ホプキンス 女人禁制のブリストン大學の寄宿舍にホプキンス男装しての無軌道振り!ホプキンス、クロスビーカライルが明ふ爵のモダニズム

次週上映 △猫と提琴△颱の暴風△最後の懺悔者△編馬太平記△女の心△ベンガル槍騎兵 公開の日愈愈迫る!

洋劇專門 浪花館

五月八日부터大公開 五月十日은陰四月八日로因하여晝夜二回公開 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大都社映画 喜劇 八軒夜店 全七卷 監督 根岸東一郞氏 主演 島田文郞氏

◇유니버살社特作映画 大活劇 蹴蹄猛襲 全六卷 主演 삐드모리스氏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名畫 路傍 全八卷 監督 마리온케링크氏 主演 名優 프레데릭마-치氏 名花 실뷔아시드니孃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桃花劇場

# 米移出不振으로 移出貿易大惡化

## 一月以降對日本內地貿易累計

## 出超千萬圓으로半減

朝鮮對日本內地貿易狀況을보면 四月中은 入超千二百五十五萬八千圓으로 前年同月의 出超五百八十一萬六千圓에 比하면 大惡化이오 一月以降四月까지의 累計에있서도

| | 今年 | 前年 | 增減(△印減) |
|---|---|---|---|
| 移出 | 一七二、一四二千圓 | 一四〇、〇四七千圓 | 三二、〇九五千圓 |
| 移入 | 一六〇、九五七 | 一一八、五九八 | 四二、三五九 |
| 出超 | 一一、一八四 | 二一、四四九 | 七四、四五四 |

으로出超가 千百十八萬四千圓에 不過하야 前年同期의 出超二千百四十四萬九千圓에 比하면 約半減의 不況이엇다。

이原因으로볼것은 朝鮮은日本內地로 쌀을移出하고其他모든企業品을 移入하는터인데 米移出에잇서는 日本內地大凶作으로 昨年十一月中 移出이激增되엇섯고 그趨勢가繼續되엇기는하지만 其後로는 日本內地의米需給關係가 그리惡化치아은데다가 米價가一月以來發想은爆發的高價가업서 朝鮮內大中農產地側이 先高豫想으로賣惜함과相俟하야 二月以來米移出이不振하고 昨年十一月以降今年四月까지의 累計가六百十八萬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二萬三千餘石의減少때문에 貿易에잇서 出超가激減된一因이되는것이다

### 移出은好轉難望 移入은減少안될듯

그런데앞으로 米移出이다시만어질가하면 今年度中米移出餘量이八百萬石超過가 不能하리란觀測이잇서 移出貿易이 好轉될가望이 적은反面에는 移入되는諸商品이 決코減少되지안코늘면늘게슬으로 結局에잇서 今年의 對日本內地貿易은 惡化難免의形勢라고憂慮하는便이잇섯다

## 重要輸出品 檢查實施 十一日부터

朝鮮產輸出品의 聲價向上과朝鮮內輸出貿易工業助長의 見地로總督府는過般朝鮮重要輸出品檢查規則을 發布하고 가장緊急을要하는電球의 輸出에對하야適用하기로 되엇는데 同令은昭和十年五月十一日부터이것을施行키로決定하고 五月八日附府令第七十三號로서公布하얏다

## 東京市中의 金價低落!

【東京電話聯合】東京市中金市勢는 投機的賣買減退와共히 賣行이不振하야 市中市勢는 一匁 十一圓八十錢賣 十一圓三十四錢買 로低落이엇다

## 『鮮航會』配船 比昨年半減

### 荷主의船要求不分明

『鮮航同盟會』에서는 五月一日로 運賃交涉決裂과共히 結速以降의配船에就하야 協議한結果 從來대로 各地支部共히 荷主의船腹要求가 不分明함으로 될수잇는대로 적게要求하는關係上 五月上旬의配船은 二萬一千三百噸으로 即約五割의 減配이며 中旬도同樣、前年同期의 三萬噸에對하야 本年은 約半減의 一萬六千噸要求이라한다

## 『鮮航同盟會』 三個年存續

### 所屬船會社調印

【鮮航同盟會】에서는來年四月로써 同盟會存續期間의 滿了가될을 豫想하고 同盟을壁固히할必要를 切感하고 期限滿了後 存續期間三個年延長을劃策하야 所屬船會社의 調印을모호든바 大體各社의 調印이完了되엇슴으로 同盟會의 存續은確定的이되엇다

## 穀聯齋藤幹事長 今井田總監訪問

穀聯齋藤幹事長은 七日午前中 伊藤理事同伴、總督府로 今井田總監을 訪問하고 朝鮮米價問題의 經過를 報告하고 今後의 對策에 對하야 意見을 開陳하얏다한다

## 中央金庫具體化

### 商工輸出組合包含한 來議會에實現必期

【東京電話聯合】商工輸出組合을包含하는 金融機關으로서 中央金庫를 設置하자는소리가 政府를비롯하야 一般輿論이되어 前議會에서도 屢次이것이問題化되엇는데 商工省에서는 全權松本前商相時代의 立案과는別個로考究를거듭하든바 大體決定을보앗음으로 準備委員會를 設置하고 具體化에着手케되엇다 即中央金庫의組織과 內容은

一、組織母體는 國內法에基하야 設立된 工業輸出組合일것

一、出資額은 六百萬圓前後로하고 大藏省預金部로부터 約三千萬圓을 限度로하야 事業基金으로할것

一、事業基金과 預金部借入資金에 不足할時는 產業組合中央金庫에 臨時債券發行을할수잇는것

一、商工中央金庫는 組合員의預金受入及 商工輸出組合員에融資를行함

等으로서 七日準備委員會를開催하고 村瀨商務 岸工務 寺尾貿易各局長과 關係官이 出席하야 審議를進하고 來議會에는 도實現을期하고잇다 그리고 組織母體인工業輸出組合外에 市街地信用組合도包含할 與否에對하야서는 目下商工當局과 農林當局間에協議中이라한다

## 簡保契約狀況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四月中新規契約數는 日本內地人五千百七件 朝鮮人一萬七千三百五十八件 合計二萬二千四百六十五件인바 四月末現在의 契約總數는 六十七萬一千百件 其保險金額一億二千三百十八萬圓으로 이內譯을示하면 日本內地人二十一萬三千六百件 其保險金額四千七百三十六萬圓、朝鮮人四十五萬七千五百件 其保險金額 七千五百八十二萬圓이다 그리고 人口千人當契約件數는 日本內地人은人口千人에對하야 三百九十三件强、朝鮮人은 人口千人에對하야 二十三件强으로되어잇다

## 手形交換激增

安城手形交換所調查=四月中全朝鮮手形交換高는 二十二萬六千八百六十五枚 一億二千五百三萬六

## 經濟界近狀

# 注目되는銀價大勢 一層高價를豫想

## 日本으로서도對策考究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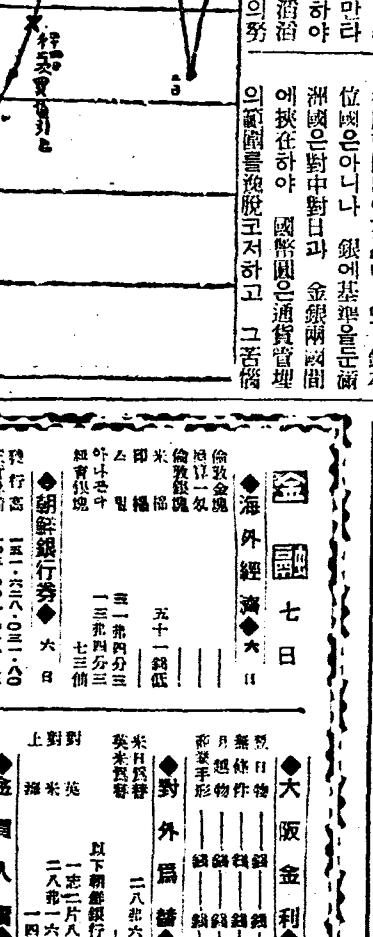
軟調裡에越月한 金融市場은五月一日에 六厘五毛를出現하야 五月의金融緩慢을指示하얏다。年初來短資의供給減少로 窮屈氣味이던 需要方面은 겨우蘇生되는듯한데 銀行側은依然한資金運用에狂奔하고잇고 米券의買付가 相當히盛行함으로 六厘五毛中心이底입것이다。다만 이에注目할것은 期近의米券은預額히買換되는터로 國債買付가以前에 不少한바이傾向이 去益發展한다면 重大한結果를 招來할것이다

▼

株式은 金融緩慢을好感하야月初東新百五十六圓高로 뛰엇스나 急反落되어不勢이고 下旬貿易은 六百二十萬圓의出超를보이엇스나 不時의出超는世界經濟의動搖를 反映한것으로서 찰아리 前途警戒를暗示하고잇다。政府는片貿易을調整키爲하야 當先加奈陀에報復手段을講究코저 通商審議會內에 特別委員會를 設置코로되어 通商擁護法을내세우게된모양이다

▲

十五年만의 高價로昂騰된銀은 繼續하야 反落反騰의狂燥를 演하고 銀에多少關係를가진世界各國의 經濟를 動搖식히고잇는바 루스벨트大統領은 墨西哥政府의 抗議에依하야 三次買値引上을 一時中止한듯하나 銀產國인 墨西哥에게는 銀價昂騰은찰아리 歡迎할일로 다만 急激한奔騰으로말미암아 金融界를 混亂에陷케할 弊害를生할것을 걱정할뿐이니 米國國內의 狀勢로보아『루』大統領은 不遠間第三次引上을行할것으로 銀價大勢는 依然高하다할수밧게업다。銀產國이아닌 中國에잇서는 銀價의昂騰은墨西哥보다도 不利할境遇가만타 宋子文은 通貨擁護를 爲하야 外銀側의 援助를求하고 滔滔한銀流出을 防止코저必死의努力을하고잇스나 銀의先高와共히 通貨制度의紊亂念慮는 漸次濃厚化하는中이다 이狀勢下에잇서 上海市場의商取引이阻害되는것은 日本서도크게 考慮할問題이겟스며 또 銀本位國은아니나 銀에基礎를둔滿洲國은對中對日과 金銀兩國間에 挾在하야 國幣圓은通貨管理의 範圍를逸脫코저하고 그苦悶이顯著하야 日本에協力과援助를求하고잇는것은 銀問題가日本에도對岸의火災가아니오 切實히對策을 考究할問題라한다




# 위선加奈陀에對해 通商擁護法發動

## 報復對策으로서決定

【電通東京電話】通商審議會幹事會는 去二日 第一回協議會를開하고 日本品防遏國에對한 一般對策及 加奈陀에對한報復對策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兩委員會의委員人選及 對策原案을決定하얏다。專히加奈陀의態度를監視中이던 加奈陀에서는 日本品防遏手段緩和의誠意가업슴이明白케되엇슴으로 九日或은十日 第二回幹事會를開하고 通商擁護法을斷乎發效하기로되엇다 加奈陀에對한 具體的方法으로서는 關稅定率法第四條及 通商擁護法第一條에依한 兩手段이考慮되엇스나 實際問題로서 關稅定率法에依하기는困難함으로 通商擁護法을發動하게된것으로 外務當局은目下 이適用에 가장 有効한 措置에 對하야 研究를 進하고잇다。幹事會에서는 原案을 確定한後 直時廣田外相으로부터 特別委員을 指命하고 近日中에 特別委員會를 開催하고 通商審議會、關稅委員會의 議를 經하야 木材、小麥、印刷用品等을 指定하야 關稅引上乃至 輸入制限의 强硬한 措置에 出하기로 되엇는데 그時機는 大體 本月下旬으로 보인다한다。

## 日本電球輸入禁止判決

### 『로스안젤스』에서

【로스안젤스六日發聯合】日本製電球의驚異的進出에 悲鳴을울리고잇든 쩨네랄에리쿠토리會社에서는 電氣法違反으로 日本製電球의輸入禁止要求를 聯邦地方裁判所에提出하얏든바 爾來一個年間의日字를費하야 로스안젤스地方裁判所는 六日原告勝訴의判決을내렷다

# 河北省政府 銀密輸取締

## 六日附正式公布

【電通天津七日發】河北省政府는 銀의輸出을防止키爲하야 中央政府와協議한結果 六日附로서 正式으로 銀의密輸出取締令을 公布하고 嚴罰主義로서 臨하는同時에 銀行方面의兌換을 嚴重監督하기로되엇다

## 米日爲替小高

【紐育六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 休日前日과 比하야 賣二十八弗六十一仙으로 四仙高이오 買二十八弗五十九仙으로 五仙高이엇다

東京爲替(七日)
對米 賣 二十八弗二分一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爲替(七日)
對米 賣 二十八弗二分一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 北鮮製紙工場 候補地吉州有力

北朝鮮製紙에서는 工場地決定에는愼重한態度를가지고잇는데 本月中旬頃 工場敷地에關한重役會를開催할터로 候補地로서는依然吉州가有力하다한다

# 日本綿布輸入制限 即時實施를勸說

## 米國『마사츄셋스』州知事가

【電通華盛頓六日發】마사츄셋스州知事는 本日綿業調查에關한 四長官會議에 出席하야 更히 棉花加工稅 反對의意向을明白히 하는同時에 日本綿布의 輸入制限을 即時實施하도록 勸說하얏다

## 輸入防遏緩和策으로 輸出綿布協調會組織

### 到處排斥밧는日本品

【大阪電話聯合】米國에잇서서의 日本綿布輸入防遏運動에 對하야 日本品取扱所로서 日本人이미 輸入商十社가 紐育織物輸入會를 組織하고 運動緩和에 努力中인데 右와相呼應하야 日本內輸出業者도 今回對米國主要輸出商인 紡績七社、輸出商七社外의 十四社를 會員으로한 對米輸出綿布協調會를 組織하고 會員間의紳士協約에 依하야 輸出數量과價格의 自主的 統制를行키로 되엇다 協調會의 目的은 一個月間에 百萬碼內外를 最高限度로하야 數量調節을行하고 輸出價格을 公正한 市價에 依하자는것이라한다

##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錢)

| | | 今日止 | 比前日 |
|---|---|---|---|
| 仁川期米 | 先限 | 二七三六 | 三低 |
| 大阪期米 | 先限 | 二九六九 | 七低 |
| 堂三等米 | 一石 | 三〇〇〇 | 一〇低 |
| 京城一等白米 | 叺 | 三〇〇〇 | 不變 |
| 正租(仁川)改良 | | 七圓六〇 | [illegible] |
| 一斤 價 在來 | | 七圓七〇 | [illegible] |

◎市中金銀價

| | 一匁賣 | 一匁買 |
|---|---|---|
| 金 | 十一圓十錢 | 十一圓五十三錢 |
| 銀 | 二十錢〇厘 | 二十四錢〇厘 |

◎株 (單位錢)

| | 今日止 | 比前日 |
|---|---|---|
| 朝新 | 三七〇 | 不變 |
| 東新 | 一四八三〇 | 一三〇高 |
| 日產 | 九四八〇 | 三〇高 |

◎商品 (先限單位錢)

| | 今日止 | 比前日 |
|---|---|---|
| 大阪綿絲 | 一三九二〇 | 八〇低 |
| 大阪棉花 | 三五七〇 | 四〇低 |
| 大阪人絹 | 一六〇 | 不變 |
| 大阪砂糖 | 一二〇〇 | 一低 |
| 고무現 | 三十一錢三 | 先三十一錢五 |

## 經濟界消息

○朝鮮製鍊社長就任=朝鮮製鍊에서는 六日定時總會에서 九分配當案을 可決하고 引退한 社長朴泳孝侯의 後任에는 副社長井上主計氏 常務에는 平取締役方台榮氏가各 就任하얏다

## 商況(七日)

### 株式 賣에反抗 反戾

**前場少戾** 低落一方이던市勢가 今前場은突込賣警戒人氣로마바라의 利喰賣等과相俟하야少戾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六十錢高인 百四十七圓八十錢、日產四十錢高인 九十四圓七十錢、大新不變인 九十三圓六十錢、日魯六十錢高인 四十四圓丁에 各大引되엇다

**後場續强** 後場은東新百四十八圓二十錢、日產九十五圓、大新九十四圓二十錢에高寄後更히 이엇다가 買人氣로 結局高價로大引

**大揉合說擡頭** 落潮淸淸의 不勢가繼續되다가 今前場은 下澁이엇는데 남어지買玉의 投出이한번더잇슬것인지念慮가不無하며 市勢의氣味는시원한反撥이잇슬것도 갓지안어場面人氣는말하자면 弱하다고아니할수업서 新規로 큰衝動을방을材料의 出現이업다면 위는東新百五十三、五圓、아래로는 百四十五圓밧게 더업슬것으로 下値는局限되어잇스니 百五十圓中心의 上下動의 大幅揉合이터잇스리란消極論이擡頭되고 一部에서는큰低落을期하는便도 不無하얏스나 大體는戻賣押目買의 小揃主義에傾한모양이엇다

### 五月無市勢?

멋처럼 騰勢로轉하얏다가 보잘것업시 우르루떠러진터이나 積極的으로買材料가업스니 突進할수도업고 惡材料란것은 그分出盡되엇더이니 무러대고작구팔수업는것이事實이다。그러즉下値가局限되어잇는東新은 此邊保合에推移될것으로봄이 妥當할것갓고 結局에잇서 五月에는 시원한맛이업시 無聊히지내리라는 말이잇다 內閣審議會는 政府가 큰는해지고積極政策이나쓰게되면 好感이잇겟스나 그것도早速히바라기어려울것이며 來年度豫算에增稅가念慮되기도하니 强弱間大幅値動은 當分無望이아닌가하는觀測이有力한모양이다

### 日產反撥無望

다른株는 急落에對한反撥을期할수도잇스나 日產만은買할條件은 泰山가티 싸여잇는터로 설령좀反撥된다드래도 處分賣와 實株의繫賣이無數히 나올것이니 日產은反撥가는 反撥이無望視되며 境遇에依하야서는 價位關係가든것이 업시 或은九十圓까지危殆한場面이엇지도 안으리라는 軟論이風靡이엇다。

###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十枚

▲北鮮製紙一四、七〇 ▲朝鮮製鍊三、三〇 ▲宇治電四一、〇〇 ▲證券金融二一、五〇 ▲帝麻三〇、三〇 ▲大同電力新二八、五〇 ▲東洋拓殖二五、五〇 ▲鮮滿拓殖二六、五〇 ▲日滿亞麻二二、八〇 ▲京阪四新四一、五〇

###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金利는保合狀態이오 環境의不活潑로賣買萎縮하야 內國債도 小弱이며 外貨債는佛貨의十錢低 米貨는爲替高로六分半五十錢、五分半十錢共히下押되엇다

▲甲五分利不申 ▲一回四分利不申 ▲二回四分利不申 ▲佛貨四分利一八五、四五

## 期米 下澁裡에 細刻

**前場下澁** 昨後場阪地三十圓〇六錢止와共히 二十七圓六十九錢에場을止한新市勢도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九十六錢인 十一錢反落을操하고 二十七圓五十九錢인 亦十一錢反落으로操을始한바 細地入十九錢까지低落할을伴하야 五十六錢까지下押하엿다가 結局阪地九十七錢의 返戾과함께 六十九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二十七圓六十六錢에 三丁低로始하야 後六節까지 六十六、七錢間細刻이다가 別備가리止場하다

### 低落은一巡? 幾分下澁狀態

挽近當市場의 實賣光景은 來客實地場買로 可謂主客사흘의 露骨化한觀이업지안헛섯다 第三者의眼目으로보아 判斷한다하면 地場의 勢力이 優越하마큼 容易히低落을 許하지 안흘것이라고하여슬것이다 그러나 때마침豐潔米作의 樂觀 又는 五月一日現在殘存米의 增加云云等豫測으로 各地期米의一齊低落을報함으로 當地亦追隨의反落을 告함에至하엿다 그러나凶作의 氣分이依然潛在하여잇슬뿐아니라 地場强氣側으로서 放任視하지도안흘것이며 軟派의利喰賣도 업지아니할것임으로 絕對深入落은업슬것으로觀測되다 賣로今朝의阪地九圓八十錢臺의 反落과當地七圓五十錢臺의 低落을示한後부터 幾分下澁의機을呈함을보면 軟派의行動은旣히一巡되엇도갓다 果如何?

### 五一殘米樂觀 벌서市勢一落

爾來豐潔米의 豊作說이 얼마큼買氣를 阻止하여왓고 從하아來六月부터는 第一期米의 入津으로 在米薄을緩和케하리라하야 一層賣氣를 助長하야 昨今의反落을告하든中 五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의 增加說이 擡頭하야 今朝의又復一落을 告함에至하엿다 然而그豫測說에 依하면 軟派는 三千九百萬石을 主張하고 硬派는三千六百萬石을豫想하는바 그差異는 三萬石으로너머나 顯著한觀이업지아니하다 此는 모르나 大略豫想하건대 四千六百萬石이잇슴으로 五月一日現在殘存米가 一千萬石이되슬할 一個月消費量을 五百萬石으로 假定하면 三、四兩月의消費量이一千萬石이될으로 結局五月一日의殘存高는 數字上으로三千六百餘萬石을見하게되는다 그러한點으로보아 硬派의觀測이 當을得하지안흘가한다

### 堂島前場軟調

【大阪電話】正米賣行一巡과 殘存米潤澤豫想으로 賣方主力의山種、永岡、三木、汐政等이 先限을 連節賣進하야 三十圓臺割을演하얏는데 其後 田中外主力의防戰買로下支되엇다

###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後方

| | 當限 | 中限 | 先限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市場六感

### 株

아츰에좀떠러지다가오을下落一方에潑地하고 下澁少戾 ▲또다시崩壞나 잇지안을가 人氣는依然弱한便 ▲전번 暴騰이投出하얏슬때 東京의場에으로買應하얏다는데 이런것들이나종에집이될것이라고 걱정이만라고 ▲三萬의投出에對하야 時間으로좀걸녓지만 價幅이五十錢의波紋밧게업섯다니 果是東新이로군 ▲軟派는齊藤의投賣玉을 目標로하는모양이나 신나서딸면 도리어큰코닷치지나안흘가? ▲形勢不良이事實이나 이以上追擊하야賣込하라면 賣月標를찾기에困難치안흘가

### 米

?此邊의大揉合이 十常八九? ▲이런때는손끗코 四圍情勢를靜觀이찰아리得策일듯 ▲中途에 彷徨하는風雲兒七限은 所謂唯一한 要寨인 八圓臺를 蹴破하고 보기조케 六十餘丁을 跳下하엿다 이제부러는 어느方面? ▲돌아右便압호로인지 又는 繼續前進인지는 모르나 大體 四圍의事情이 以上의 低落은 許하지 안흘듯 ▲그理由는 이제야 겨우 播種을하고 植付時期의 天候가 將次 如何한 現象을 招來할지 모르는 此際에 더구나 在米가 稍漸稀薄하여지는 今日인만큼 賣賓成을 繼續하지못할것이一理 ▲그러고 賣方으로서는 利退할場所이오 買方에게는押目買의 絕好場所인것이 또한一理 ▲ 實로 今朝부터 幾分 下澁하는 光景이니 此에서 多少反撥은 免치못할듯 ▲五月一日現在 日本內地 殘存米에 對하야 軟派는 三千九百萬石說을 高調한다고 그러면 두달동안에 日本內地의 消費가七百萬石밧게아니되엿다는 세움이엇다 ▲一個月에 적어도 五百萬石의消費는 在來의 數字的으로 論證明하는바이다 그러면두달동안의消費가 一千萬石 ▲三月一日現在殘存米四千六百餘萬石에서 一千萬石을控除하면 三千六百餘萬石 此數字가찰아리近理

## 各地正米

**京城小弛** 繼續하야 定期의反落과 產地持米側의 換金的賣物이 散見되어氣配가前値보다 十錢四引强인丸仁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不味** 依然產地의賣物이潮하고 僅히清算緊外米가精米側에 되는程度로 取引이不捗인模樣이며氣配十錢低唱인 丸仁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五錢

**釜山閑散** 細米三千叺 清算低도反撥이엇고 產地强硬한態度를繼續하야 低價에는賣應치안는一方新規取引은 實需의常用準備滿腹과相俟하야買傍觀이며 閑散場인角丁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錢

**大邱不動** 依然、產地로부터賣物이적고 清算의低迷를보고 地方人注薄으로 買氣가全혀阻喪되어閑散場面에推移되엇다 角丁三等二十七圓四十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十米一圓三十五錢

**群山續落** 週着一稱依然產地地場共히 賣物이적고 清算이下走함으로 日本內地의 買氣가乏하고 氣配는十五錢 續落이나 低價에는 移出側에 買狙되엇다 變ク三等二十七圓五十五錢四等二十七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木浦不勢** 產地所持의小口賣物이 散見되나定期의 軟調와 日本內地入注薄으로 買氣가 萎縮되어 僅히必需側에買拾될뿐으로 氣乘薄場面인 丸木三等二十七圓四十錢四等二十七圓五十錢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南浦崩落** 留外船의 配船工作에 奔走中인 關係로 取引이全혀傍觀되고 氣配는定期에追隨하야 三十錢崩落인 縮尾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米一圓三十五錢

## 金融 七日

◆海外經濟◆六日

| | | |
|---|---|---|
| 倫敦金塊 | 一匁 | [illegible] |
| 倫敦銀塊 | | 五十一錢低 |
| 紐育銀塊 | | 七三仙 |

◆朝鮮銀行券◆六日 [illegible]

◆日本銀行券◆六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 米穀 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 商品 七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시카코期麥◆ [illegible]

◆鰮油沖價◆ [illegible]

◆鰮搾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 株式 七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七、〇〇〇 累計 [illegible]

◆閉定代引日步◆ [illegible]

## 期米 七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 商品 七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滿外砂糖◆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代金引換販賣御注文地方
送料先金
電話本局三九三九
振替京城二三四